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제1721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멈추지 않는 中 사드 보복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현대車·롯데 등 피해 눈덩이
한국경제 손실 규모만 8.5조
"국제사회 압박 수위 높여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빌미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 사드 경제 보복이 장기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상반기에만 수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31일 산업부와 재계에 따르면 사드 배치로 현대자동차, 롯데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올해 한국 경제 손실 규모만 8조5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로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사드 부지 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롯데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룹의 계열사 현지 사업장이 세무조사, 소방점검을 받았다. 올해 3월 이후 중국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개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 화장품 제조공장도 사드 보복의 타깃이 됐다. LG생활건강 항저우 화장품 공장은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 점검을 받고 처분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는 단연 자동차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고, 판매 부진에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협력업체가 아예 납품을 거부, 현대차 중국 공장이 일제히 멈춰 서기까지 했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모두 43만947대로, 지난해 상반기(80만8359대)보다 52.3% 급감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면세산업 피해가 연간 4조 원에서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주중대사에 중국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노영민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기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공정위 예산 대폭 늘려 '재벌개혁' 힘싣기

〈전년보다 6.5% ↑〉

429조 내년 '슈퍼 예산안'에도 희비 엇갈린 경제부처

올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3배↑
농림부 상시방역 구축 16% 증가
산업·국토·해수부는 대폭 감액

내년 정부 예산안이 429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수립했지만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본격적 재벌개혁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이 크게 늘어 업무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별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6.5%, 0.04%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해양수산부은 각각 3.8%, 2.9%, 0.6%씩 줄었다.

▶관련기사 2면

공정위 내년 세출 예산은 1194억 원으로 전년(1121억 원)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의 증가율(1.9%)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대 요인은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보다 53억 원이 늘어난 14조4940억 원을 편성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16.0% 증가한 4775억 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2.9% 줄어든 6조7706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인 광물자원공사·유전개발 출자 사업으로 400억 원 규모가 감액됐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원자력환경공단 사옥 신축 사업 등에서 1001억 원 규모가 줄었다.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등 총 7개 사업 예산 3268억 원이 날아갔다.

해양수산부는 0.6% 줄어든 4조9464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교통·물류는 2조3869억 원으로 2.0%(479억 원) 감액됐다. 이 중 항만은 1조2793억 원으로 올해보다 7.9%(1097억 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다 보니 희비가 나뉠 수는 있다. 해마다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 부처들로서는 SOC 예산 등이 줄어든 요인이 크다"며 "예산이 증액된 공정위는 사실 인건비인 데다, 농림부 증액 예산도 소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
박엘리 기자 ellee@
이정필 기자 roman@

백운규 산업부 장관·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올스톱'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회수율
올해 7월 기준 ※출처: 예금보험공사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지분 93.85%)
공적자금 투입	10조2500억 원(1998~2001년)
회수금액	3조5000억 원
미회수액	6조7500억 원
회수율	34.10%
예보 지급 배당금	3210억 원(배당성향 55.7%)

서민지원 정책금융 역할 강조로
우리銀·예보지분 매각 논의안해
6.7조 공적자금 회수도 불투명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의 친(親)서민 기조 아래 서울보증보험의 정책금융 역할이 강조되면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은 물론, 예금보험공사의 서울보증보험 지분(93.85%) 매각건을 정식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공자위에 올라간 정식 안건은 2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과 공적자금 백서의 국회 배포 등 2건뿐이었다.

서울보증 사장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보증보험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포용적 금융'의 6대 실천과제에는 사잇돌대출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서민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서민형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이 일정 보험료를 받는 대신 대출 원금을 보장해주는 만큼 서울보증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민영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서울보증 매각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7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보증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4.1%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예보가 서울보증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10조2500억 원(1998~2001년), 이 중 회수된 금액은 3조5000억 원에 그친다. 6조7500억 원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인 것이다.

서울보증이 예보에 지급하는 배당금도 줄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서울보증의 배당성향(순익 대비 배당금)은 평균 75%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55.7%로 급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14개월째…기준금리 1.25% 동결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이는 이투데이가 25일 13명의 증권사 채권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이른 데다 정부가 이제 막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8·2대책과 9월 초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기조도 낮은 물가에 발목이 잡히는 분위기다. 계속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진정한 스마트홈…삶의 모든 순간이 혁신"

삼성, 獨 IFA 프레스 콘퍼런스서 신제품·서비스 대거 선보여

데이비드 로우즈 유럽 CMO
AI세탁기·웨어러블 3종 등 공개

혼자 사는 회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패밀리 허브'에 간단한 음성명령을 내린다. 저녁 파티에 올 친구들에게 초청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식재료를 찾아 삼성페이로 주문할 수 있다. 퇴근할 때 "하이 빅스비, 커밍 홈 모드"라는 명령만 하면 에어컨·로봇청소기·실내 조명·TV 등이 동시에 원하는 상태로 작동된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가 내세운 일상 생활 속 사용자 중심의 진정한 스마트홈의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7'을 앞두고 30일 프레스 콘퍼런스를 통해 하반기 전 세계에 선보일 신제품과 서비스를 대거 공개했다.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린 베를린 대형 공연장 '템포드롬'에는 2000여 명의 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초청됐다. 일상 속에서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을 통한 스마트홈 사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한 데이비드 로우즈 삼성전자 유럽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무대에 올라 삼성의 전략을 공유했다.

데이비드 로우즈 삼성전자 유럽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삼성의 하반기 신제품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초고화질 인테리어 TV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세탁기 및 청소기,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 웨어러블 3종이 잇따라 등장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데이비드 로우즈 CMO는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에는 타협 없는 장인정신, 똑똑한 연결,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이 근간에 깔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무대는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에 무게가 실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IoT 표준화 단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의장 매튜 페리(Matthew Perry)는 무대에 깜짝 등장해 "서로 다른 회사의 수많은 기기들을 연결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해 390여 개의 OCF 회원사와 IoT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독일)=정유현 yhssoo@

나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은? 내달 11일부터 수시 모집 ▶20~21

솜값 채소, 불안한 달걀 ▶10
없어서…믿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18
문무일 검찰총장

신동주 전 부회장 ▶9

고연순 팀장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일자리·환경·재벌개혁 곳간 풀고, SOC·개발엔 허리띠 질끈

〈사회간접자본〉

'청정에너지 전환'에 1조657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9%(1990억 원) 줄어든 6조7706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에서 25%에 달하는 1조6570억 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려 1조65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448억 원(14%)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농촌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9190억 원에서 내년 9751억 원으로 6.1%(561억 원) 늘어난다.

산업부는 ESS, 스마트그리드, 발전 단가 저감 및 효율을 향상하고,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ESS 기술 개발 489억 원,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 개발 425억 원,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1858억 원, 초절전 LED 융합기술 개발 20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자원공사·유전개발 출자 사업으로 400억 원가량이 대폭 감액됐다.

올해 완료하거나 자연 감소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135억 원)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280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150억 원) △원자력환경공단 사옥 신축(89억 원) 사업 등으로 1001억 원이 감액됐다.

산업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R&D 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장비 구축 사업을 축소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총 7개 사업 예산 3268억 원이 넘어갔다.

박엘리 기자 ellee@

SOC서 4.4조 삭감… 총 39.8조 편성

국토교통부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 건설 등 SOC 예산 감소로 예산 총액은 3년 연속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638억 원을 배정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102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375억 원 등 지역개발과 낙후지역 개선 예산도 늘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에 지원될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보다 2조7000억 원이 늘어난 23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호(부지 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위해 13조 원을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7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8534억 원이 배정됐다.

건물 붕괴, 교통사고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3조7880억 원이 투입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71억 원, 도로, 고속·도시철도 내진보강사업 1089억 원, 철도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 8711억 원이 배정됐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3600억 원이 줄어든 14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감소 영향이 컸다.

그러나 춘천~속초 간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사업은 본격 추진된다.

김덕헌 기자 dhkim0715@

부처별 예산 주요 내용 (단위: 원, %)

	2017년	2018년	증감률
산업통상자원부	6조9695억	6조7706억	-2.9
국토교통부	41조3000억	39조8000억	-3.8
농림축산식품부	14조4887억	14조4940억	+0.04
해양수산부	4조9764억	4조9464억	-0.6
공정거래위원회	1121억	1194억	+6.5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조4122억	1조6570억	2448억	+14.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860억	2360억	1500억	+174%

국토교통 SOC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9조600억	14조7000억	4조3600억	-23%

주거급여 등 복지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조600억	1조2100억	1500억	+14%

농업·농촌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3조3247억	13조3770억	523억	+0.4%

식품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7478억	6739억	-738억	-9.9%

교통시설특별회계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조4867억	1조3664억	-1203억	-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436억	506억	70억	+16.1%

행정소송비용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29억4000만	30억	6000만	+2%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2017년(A)	2018년(B)	(B-A)	증감률
11억	11억1700만	1700만	+1.5%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오너家 감시인력 '업' 예산 1194억…증가율 3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1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 예산의 증가율(1.9%)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신규 인력 43명)이 포진된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의 고강도 감시업무가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분석과도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이 담겨 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디지털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지다. 인력은 기존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 원, 2억 원 보강됐다.

증가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기업집단국 조직은 청사 주변의 외부 임대가 추진 중이다.

한편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 원 규모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부과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사건조사 후 제재까지는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와 비교해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

농림축산식품부

사육환경·방역에 4775억 청년 영농창업 1조2528억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14조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식품분야 지원 규모는 673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38억 원(9.9%) 삭감됐다. 대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4775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0% 증액한 규모다.

특히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 원)과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폐쇄회로(CC)TV 지원(186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고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터진 탓이다.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에는 11.7% 늘어난 1조2528억 원을 편성했다. 쌀 수급안정 및 쌀값 회복 지원액은 1조7948억 원으로 올해보다 15.3% 증액했다.

반면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는 올해보다 4.9% 줄인 1조5472억 원을 책정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농산물 비축 비용을 4295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11.5% 삭감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 예산은 1조1681억 원으로 올해보다 3.8% 줄였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등 농정 현안 해결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해양수산부

교통 물류 감액·환경 증액 내년 총 예산 300억 줄어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기금 포함 예산으로 4조946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4조9764억 원)과 비교해 0.6%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예산은 2조1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1%(27억 원)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2402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32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는 2조3869억 원으로 2.0%(479억 원) 감액됐다. 이 중 항만이 1조2793억 원으로 올해보다 7.9%(1097억 원) 급감했다. 해운·해사의 경우 4228억 원으로 13.7%(511억 원) 늘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 총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해양환경 분야는 132억 원, 수산은 2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1억 원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 건조를 지원(5만 톤, 43억 원)해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공공선박 24척 건조 예산은 1884억 원을 배정했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예산은 676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렸다. 광양항 항로 준설에는 신규 예산 45억 원을 책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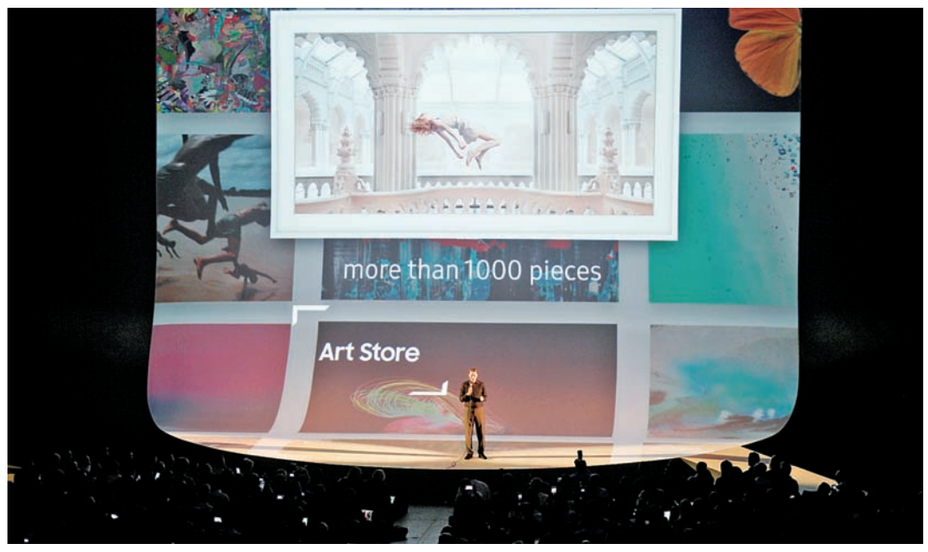
이정필 기자 roman@

액자 같은 TV '더 프레임'… 시간절약 세탁기 '퀵드라이브'… 웨어러블 '기어 스포츠'

IT세상 '뉴 노멀' 이끈 삼성의 저력

〈New Normal : 새로운 일상의 기준〉

IFA CONSUMER ELECTRONICS UNLIMITED BERLIN, 1-6 SEP 2017



'IFA 2017' 개막에 앞서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로즈 삼성전자 유럽 최고마케팅 책임자가 프리미엄 TV '더 프레임' 43인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IFA 2017' 프레스 콘퍼런스 대성황
홈 IoT기술 보여준 오프닝 흥미진진
생활가전서부터 웨어러블 기기까지
혁신제품 소개될 때마다 박수·탄성

#2000여 명이 가득찬 템포드롬의 조명이 꺼지자 화면에 한 남성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평소대로 스마트폰에 연동된 로봇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세탁 중에 깜빡했던 양말을 추가한다.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남은 우유를 넣고 냉장고 외부의 디스플레이에 'Gone to IFA'라는 메모를 남긴다. '갤럭시노트8' 제품의 버튼을 터치하니 갑자기 템포트롬의 조명이 켜진다. 관객들이 동요한다. 남성이 집 밖으로 나가 복도를 걷는다. 복도의 끝은 프레스 콘퍼런스의 주인공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템포드롬과 연결된다. 일상의 연결을 표현한 퍼포먼스에 2000여 명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온다.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7' 개막에 앞서 30일(현지시간) 유럽용 전략 제품과 주요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상의 전환과 혁신으로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거실을 갤러리나 영화관으로 만들어 주고 제품 자체가 인테리어 오브제가 되는 TV △가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가전제품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등 소비자 일상에 의미있는 혁신을 가져다줄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한 데이비드 로즈 삼성전자 유럽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기술 혁신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비자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며 "삼성전자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일상의 기준(New Normal)'이 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통해 유럽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더 프레임'의 43인치 제품을 소개했다. 더 프레임은 액자 같은 디자인으로 일상 공간을 갤러리로 만들어 주는 TV다. 유럽을 공략한 제품인 만큼 제품이 공개되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예술 작품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도 평가받는 더 프레임은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스페인 프라도 등 각국의 유명 갤러리·미술관과 콘텐츠 파트너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트스토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연내 1000여 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QLED TV의 새로운 TV 액세서리 비즈니스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진행된 QLED TV 스탠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된 1200여 개 작품 중 최종 선정된 후보 5개가 소개됐다.

이날 무대에서 지역 특성상 세탁 시간이 오래 걸려 고민이 많았던 유럽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세탁기 '퀵드라이브'와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파워스틱 프로'가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흘러나오고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다. 이 제품은 비행기 날개 형상으로 설계된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적용해 업계 최대 150W 흡입력을 구현함으로써 바닥 재질에 상관없이 99%의 청소 효율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 웨어러블 '기어스포츠·기어 핏2 프로·기어 아이콘X'가 공개했다. 제품이 공개되자마자 이탈리아의 한 IT매체 기자는 "이날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제품은 기어스포츠다"라며 "빨리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베를린(독일)=정유현 기자 yhssoo@

베일 벗은 '건강 특화' 웨어러블 3종

기어 스포츠

기어 핏2 프로

기어 아이콘X

기어 스포츠
운동량·섭취음식 칼로리 기록 편리
삼성헬스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연동

기어 핏2 프로
인체공학 디자인 가볍고 착용감 우수
GPS로 이동시간·거리 정확히 측정

기어 아이콘X
이어버드 간 연결선 없는 '코드프리'
4GB 메모리 내장 음악저장·재생

삼성전자의 건강 특화 웨어러블 신제품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7' 개막에 앞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운동에 특화된 웨어러블 신제품 3종을 공개했다. 웨어러블 3종은 이날 행사의 단연 주목받는 제품으로 공개되자마자 가장 많은 함성이 흘러나왔다.

삼성전자가 피트니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야심 차게 선보인 웨어러블 최신작 3종은 건강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 스마트워치 '기어 스포츠(Gear Sport)'와 스포츠 밴드 '기어 핏2 프로(Gear Fit 2 PRO)', 2세대 코드 프리 이어셋 '기어 아이콘X(Gear IconX)'다.

'기어 스포츠'는 독창적이면서도 편리한 원형 베젤과 1.2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사용자의 운동 및 활동 기록과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또 삼성헬스에 새롭게 탑재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기어스포츠에서 손쉽게 컨트롤하며 가이드에 따라 운동할 수 있다.

'기어 핏2 프로'는 1.5형 커브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인체공학 디자인이 적용된 스포츠 밴드다. 가볍고 우수한 착용감을 선보인다. 실시간으로 심장박동을 측정해 최대, 격렬한 구간, 보통 등 3 단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사용자가 끊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GPS를 탑재해 걷기나 달리기, 사이클 등의 지속 시간, 거리, 이동경로 등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인식해 기록을 시작한다.

'기어 아이콘X'는 좌우 이어버드(earbud) 간 연결선이 없는 '코드 프리' 디자인 제품이다. 기어 아이콘X만 있으면 자체 내장된 4GB 메모리에 음악을 저장해 스마트폰 없이도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동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베를린(독일)=정유현 기자 yhssoo@

"北, 미사일 쏘건 말건…" 이케아의 패기

안보 리스크에도 韓시장 투자 확대
10월 고양에 2호점… 1년內 3호점
"2020년까지 6개 점포 개업하겠다"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가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다른 사업 의지를 내보여 눈길을 끈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만큼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29일(현지시간), 이케아 2호점을 10월 19일 오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문을 여는 이케아 2호점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4년 문을 연 1호점인 광명점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중 최대 규모이자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호점도 1년 안에 개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6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건 이케아 코리아가 2호점 오픈 일정을 발표한 날이 공교롭게도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발표를 한 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컨설팅 업체인 컨트롤리스크의 스티브 월포드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설팅 담당 이사는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은 북한, 미국,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만성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상태를 의식하지 말고 하던 대로 가야 한다"며 "소비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최근 몇 달간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으나 올해 이케아 코리아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한 3650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대북 관계 경색이 소비 욕구를 떨어뜨리는 등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에리카 시리멘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음에도 한국 시장은 소매업체에 상당한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시리멘은 "정작 이케아의 핵심시장인 유럽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청년실업 문제, 주택난 등이 장애물로 부상했다"며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아파트 주거가 일반화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립식 가구를 선호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도 분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일부터 100일 일정…국정과제 입법·세법 등 수북
20대 국회 총 8589건 발의, 법안 처리율 17% 수준
국감 '적폐청산 vs 정책추궁'…예산·법안 처리 험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하루 뒤면 시작된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역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캐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한판 싸움이 예고돼 있다.

31일 오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법안은 7114건이다. 총 8589건이 발의됐지만 1475건만 처리돼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에 그친다.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수두룩한 법안들 속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 사안으로,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기국회 주요 일정

9월	1일	개회식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 11일 : 정치 • 12일 : 외교통일 · 안보 • 13일 : 경제 • 14일 : 교육 · 사회 · 문화
	15~27일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본회의
10월	12~31일	국정감사 실시
11월	1일	2018년 예산 시정연설
12월	1일	본회의 (예산처리)
	7~8일	본회의 (법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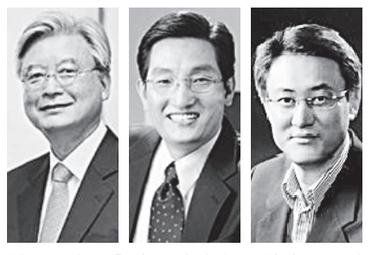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대선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공통공약의 입법화 작업조차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429조 원으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벌써 매섭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성장을 무시한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재정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이라면서 예산안 재편성까지 요구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을 문제 삼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들추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문제점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기자 bomnal@



왼쪽부터 조윤제 주미대사, 노영민 주중대사,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

조윤제·노영민·이수훈
美中日 3强 대사 내정
야권 "코드·보은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미대사에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주중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을, 주일대사에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12일 만에 '주변 4강' 중 러시아를 제외한 3강 인선이 완료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사국에 대사 임명 동의(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다"며 "외교 관례상 당사국과의 임명 절차가 끝난 후 발표해야 하나, 주요국 대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커 오늘 임명 동의 절차 진행과 동시에 내정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조 주미대사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맡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과 주영국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등을 지내 국제 경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3선 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해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이번 인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핵 문제와 사드 보복 등 외교 현안이 산적했는데도 문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보은·코드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SOC 예산 4.4조 감소 야당 "지역 홀대" 반발

광주·전남 신청액의 20·50%
대구는 4분의 1 가량만 배정
주로 도로·철도 건설비 축소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확정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4조4000억 원 줄어든 17조7000억 원 규모다.

예산 축소분은 주로 도로·철도 신규 건설비 삭감을 통해 이뤄졌는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삭감을 들어 '지역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30일 이용호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SOC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이 의장은 "SOC를 줄이는 것은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그 폭이 평소 예산이 2%에서 5% 정도는 해마다 늘려왔는데, (올해는) SOC 분야에서 무려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민의당 정책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광주와 전남도가 신청한 지역의 SOC 사업비는 각각 20%와 50% 수준만 배정받았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완도고속도로, 여수·남해고속도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으로서는 인사 폭탄보다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 폭탄이 절실하다"고 항의했다.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 역시 정부의 SOC 예산 축소 편성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대구시가 신청한 예산은 3조4215억 원 규모였지만, 실제 배당액은 2조8747억 원으로 약 5400억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시는 6개 SOC 사업에 국비 1823억 원을 신청했지만 4분의 1가량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SOC 예산 축소규모인 20%보다 큰 규모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바로잡아 달라"며 TK 민심 수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야당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쳐 SOC 예산이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SOC 예산은 3000억~4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폭 줄어든 SOC 예산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들이 면을 세우려면 지역 예산 확보는 필수이므로 야당의 반발은 당연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종교인 과세 '합장'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굿네이버스

민아에게
방학은 ( )입니다

급식이 끊기는 방학이 되면
10살 민아와 동생은
급식카드 사용이 편한 편의점 음식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방학은 '즐거움'이지만
민아에게 방학은 '배고픔'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굿네이버스는 방학 중 소외되는 국내 위기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및 문화체험, 심리정서지원 등의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방학지원 검색

백운규 "경제계 맏형은 이제 대한상의"
박용만 "경제 근본 패러다임 전환 공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재계의 맏형'으로 지칭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백 장관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대한상의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대한상의가 수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해 주는 한편 정부와 같이 호흡하고 노력해 달라"며 산업부와 상의 간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백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새 정부가 대한상의를 명실상부한 '경제계 대표'로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재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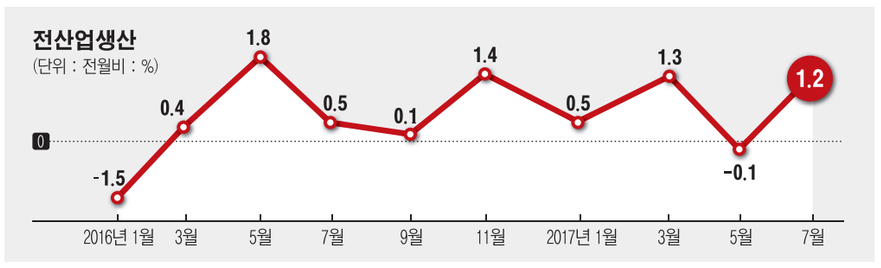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이 현재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박 회장은 "2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7% 넘게 증가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2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출도 증가 추세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상당 부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과 업종에 수익이 집중된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경제계도 공감하고, 양극화 해소 노력과 함께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혁신 활동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9월 이래 정치적 격랑을 거치며 산적한 숙제가 많은데, 장관이 새로 부임하셔서 기업인들로서는 든든한 원군을 얻은 기분"이라며 "산적한 현안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숙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벽, 4차 산업혁명 대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 환경 대응 등 각종 실물경제 현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백 장관은 규제 완화, 시장 창출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김유진 기자 eugene@

7월 산업생산 1.2%↑, 4개월 만에 반등

자동차 6.5%·전자부품 9.4% 늘어
소비판매·서비스업도 증가 추세
8월은 경기심리 둔화 영향 불투명



전체 산업생산이 7월 반등에 성공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만 8월 전체 산업생산은 경제심리가 둔화되고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올해 4월(-1.0%) 하락세로 전환한 뒤 5월(-0.1%), 6월(0.0%)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7월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7월 전체 산업생산을 견인한 곳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다. 이 중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7.2%), 금속가공(-4.2%)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6.5%)와 전자부품(9.4%)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 전월에 비해 1.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8% 늘었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2%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7월 전체 산업생산을 같이 이끈 서비스업 생산도 전문·과학·기술(-2.6%), 숙박·음식점(-0.2%)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1.0%)와 보건·사회복지(1.3%) 등이 늘면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탔다. 7월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6%)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2%) 판매는 줄었으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5%) 판매가 늘면서 전월에 이어 0.2%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자지표는 설비투자와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이 엇갈렸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1%)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2.2%)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5.1% 감소했다.

통계청은 "일부 반도체 회사의 설비투자 부분완료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월보다 빠졌으나 2단계 추가 증설을 준비하고 있어 반등할 여지를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4.5%)과 토목(1.2%)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에 비해 3.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이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과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했으나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7월 전체 산업생산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늘고 서비스업 생산도 꾸준히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며 "다만 8월 전체 산업생산은 경제심리 둔화가 시작되고 서비스업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식시장 지수하락,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자율주행차 시승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착공식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계열사 4곳 늘어… 총 1281개

올해 8월 중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가 한화지상방산·한화파워시스템 등을 설립했고 농협·LS가 각각 2곳의 계열사를 늘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31개의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1281개로 전월과 비교해 4곳이 늘었다.

계열사 편입 내역을 보면 한화는 무기·총포탄 제조업인 한화지상방산과 유압기기 제조업 한화파워시스템, 반도체 장비업 한화정밀기계를 계열로 편입했다. 동일인 측 최대주주는 한화테크윈(동일인 측 최대주주 지분율 100%)이다.

농협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식품을 설립했다. 비료생산·판매업 상림농업회사법인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 편입했다.

농협식품과 상림농업회사법인의 동일인 측 최대주주는 각각 농협경제지주(100%),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90%)가 갖고 있다.

LS는 경기도 안양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LS에이홀딩스와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를 신설했다. 이들의 동일인 측 최대주주는 LS엠트론(100%), LS에이홀딩스(100%)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반면 GS, 농협, 한진 등 3개 집단은 총 3개의 계열사를 제외했다. GS는 흡수 합병한 왓슨스코리아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한진은 흡수 합병한 유니컨버스투자를 계열 제외했다. 농협은 테이팩스를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 제외했다.

한편 계열사 수 변동 추이를 보면, 5월 1266곳, 6월 1263곳, 7월 1268곳, 8월 1277곳으로 매달 증가세다.

이규하 기자 judi@

벤츠 등 48개 차종 제작 결함… 4만3000대 리콜

현대車 32건 조사로 더 늘어날 듯

메르세데스-벤츠 등 48개 차종 4만300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올해 자동차 리콜은 현재까지 138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폴크스바겐 등에서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3239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E300 등 46개 차종 2만8203대는 세 가지 결함으로 각각 리콜된다. 벤츠 E300·C200·A200·CLA250 4MATIC 등 20개 차종 2만6147대는 전류제한기 이상이 확인됐다.

벤츠 GLE350 d 4MATIC 등 9개 차종 1833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벤츠 C220 d 등 17개 차종 223대는 사고 시 안전벨트를 승객 몸쪽으로 조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올해 들어 188건, 138만2490대로 집계됐다. 2003년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최대 규모인 2004년의 115건, 136만9925대를 넘는 기록이다.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의심사례 32건을 조사하고 있어, 리콜 대수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고, 9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수능 개편 1년 유예…중2로 혼란 번져

내년 8월까지 교육개혁 미뤄
일부 절대평가 또는 전면 적용
1·2안 모두 반대 부딪혀 보류
학부모 80% "현 수능 유지"
"중2, 대비할 시간 여유 없어져"

절대평가 범위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졸속 개편으로 교육계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로 예정됐던 2021년 수능 개편방안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1년 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10일 발표하고, 4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내놓은 시안은 두 가지다. 1안은 국어, 수학, 선택과목(사회·과학탐구 중 택 1)을 상대평가하고,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로 시행한다.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1안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로 남는 과목들에 대한 '쏠림현상', 2안에 대해서는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비중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비판받자 보수·진보 단체 가릴 것 없이 1안과 2안 모두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학부모 37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현행 수능이 유지되길 원한다"며 "정부는 무리하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개편안 발표를 강행하지 말고, 당분간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10개 교사·교육단체들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개편안 1, 2안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더 발전적인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수능 개편안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개편안 확정 1년 유예는 교육부가 결국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교육계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개정 교육과정의 대표 교과목으로 알려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빠져 교과수업과 수능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 현재 중 3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개편안 확정에 맞춰 대비하려고 했던 중3 학생·학부모들에게 더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개편안 발표 1년 유예로 혼란은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 결과에 따라 수능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노인진료비, 건보 40% 육박 총 34조…틀니·임플란트 급증

작년보다 진료비 10% 증가
노인 1인당 월 34만원 들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34조 원 가운데 4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진료가 급증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33조9859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2%(2조8604억 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3조5689억 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사실상 40%대에 진입했다. 건보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5.4%, 2014년 36.3%, 2015년 37.6%, 2016년 38.7%, 올해 상반기 39.9%로 계속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만4238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1만1487원의 3.1배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노년 백내장, 알츠하이머 치매, 폐렴, 고혈압, 치은염, 기관지염 등이었다.

지난해 7월 임플란트 건보 적용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치과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9.0%, 23.1%로 의료기관 전체 평균 9.2%보다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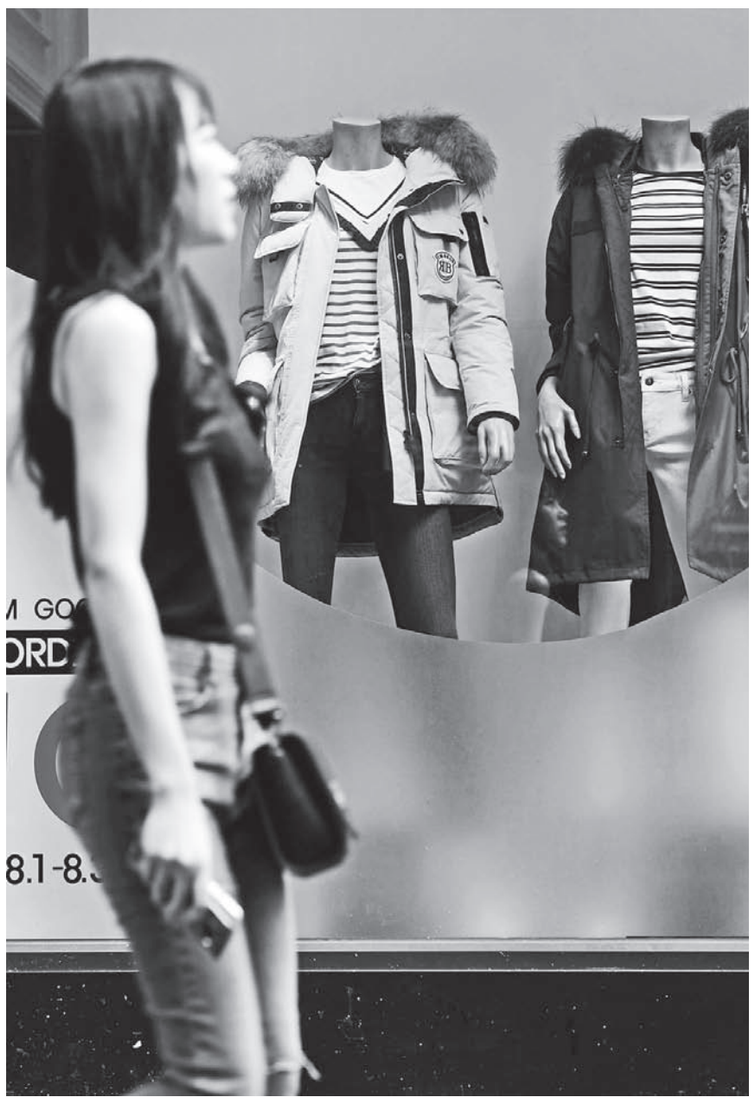
현재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의 경우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 비율을 50%에서 30%까지 줄일 계획이어서 치과를 찾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1인당 진료비는 67만2000원(연간 134만3000원)으로 8.7% 증가했다. 10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7000원으로 전연령 평균 진료비의 72%가량이었고, 70세 이상은 222만7000원으로 3.3배 수준이었다.

6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85만 명이다. 이 중 직장 적용인구는 3701만 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쇼윈도 너머, 이미 겨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성큼 다가와 가을을 느끼게 한다. 3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의류 매장에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 너머로 때이른 겨울 옷이 걸려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논란 이어 김이수 인준도… 국회 가로막혀 표류하는 헌재 구성

野 "대법원장 포함 1명은 낙마"
李 후보자 주식 차익 논란에
법조계선 "합법" 등 의견 분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도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맞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장기 계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대로 김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임명 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법조계에서도 분분하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해당 업체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정보 수령자'에 포함된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을 맡더라도 사건을 수임하면 보통 친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반면 낙마 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다른 변호사는 "내부자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합법적인 주식 투자로 보인다"며 "이 후보자가 금융 사건을 맡지 않았고, 이자에 밝은 분도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구입해 5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한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허위재산신고,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초중고생 1년새 17만명 줄어

다문화학생 첫 10만명 돌파

초·중·고등학생 수가 1년 사이 17만 명 가량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 개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교원 현황을 조사한 '2017년 교육기본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 수는 646만8629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7155명(2.5%) 줄었다. 특히 중학생은 5.2%(7만6156명), 고등학생은 4.7%(8만2758명) 줄었다. 반면 초등학생은 0.1%(1384명) 늘었다.

다문화 학생은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0.3%(1만201명) 늘어난 10만9387명으로 집계됐다.

4월 1일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수는 2만938개로 0.5%(103개) 늘었다. 학생은 줄었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원 수는 49만2187명으로 전년 대비 1035명(0.2%) 증가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6.4명, 중학교가 14.0명, 고등학교가 13.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2014년 기준)는 초·중·고교가 각각 15.1명, 13.0명, 13.3명이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4만7663명이었고, 학업중단율은 0.8%로 전년과 같았다. 특성화고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8.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취업률은 34.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박은평 기자 pepe@

SK broadband

NCSI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국가고객만족도(NCSI)

17년 연속 1위

2017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6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5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4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3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2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2011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IPTV, 인터넷
국가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고객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이
2017년 NCSI(국가고객만족도)에서 7년 연속 1위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더 큰 고객가치, 고객행복을 위해 변화하는 SK브로드밴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가입문의 106 | www.skbroadband.com

새 가상화폐 상장 明暗 빗썸 웃고 코인원 울고

빗썸 상장 '모네로' 하루 거래량 1000억…글로벌 1위
인프라 확충 서버 안정시켜…수수료 할인 쿠폰도 인기

'퀀텀코인' 상장 과정서 서버다운·입출금 오류 코인원
거래량 554억에 그치며 세계 3위에서 7위로 떨어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이어 새 코인(가상화폐의 다른말)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지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빗썸이 상장한 모네로(XMR)가 일일 거래량이 1000억 원 수준인 것과 달리, 코인원은 약 554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거래됐다. 이 차이로 빗썸은 전세계 거래량 1위로 지켰고, 코인원은 순위가 하락했다.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사이트 코인힐스(Coinhills)에 따르면 빗썸은 일일 거래량이 13만4536.35비트코인(오전 7시 20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839억 원(1BTC당 508만4000원)이다.

2위인 비트렉스와는 2만3621.1비트코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

빗썸은 최근 대시(DAS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 모네로(XMR) 등을 빠르게 상장하고 있다. 이 덕분에 지난달 말부터 세계 거래소 순위에 1위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코인이 나올 때 이를 무조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장성을 판단해야 하고, 서버와 보안 등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 여기서 가상화폐의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투자유치 자금과 막대한 수익을 인프라 증설에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 빗썸 등 일부 거래소의 수수료 파격할인 쿠폰 정책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일부 거래소는 퀀텀(QTUM)코인 상장과정에서 잦은 서버 다운을 일으키며 사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서버 다운, 전산 오류 등의 크고 작은 문제는 특정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인원은 특히 이더리움과 퀀텀코인의 입출금 오류가 발생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트레이더들은 뜻하지 않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급등장 추매를 노리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고점 매수 후 서버가 다운되면 영락없이 손실을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 3위권이던 코인원의 순위가 7위까지 밀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우리銀 잔여지분 매각 지연… 지주사 전환도 차질

매각에 긍정적인 공적자금관리위원들 10월 대거 임기만료
자회사 우리종금 미신고 업무 적발도 악영향…제재 불가피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 건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잔여지분 매각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애초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최종구 위원장이 조속히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18.78%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 가운데 11조 원이 회수된 상황이다. 나머지 잔여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남은 금액도 현재 우리은행 주가를 고려하면 정부로선 이익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미신고 업무를 해오다 당국에 적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종금은 2007년 자본시장법상 종금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주문 등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종금은 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원래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했지만 제재를 받게 되면 이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긍정적이었던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대거 임기만료를 맞는 것도 연내 매각의 장애물로 꼽힌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공적자금 회수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공자위 위원 총 8명 가운데 6명 임기가 10월 10일에 만료된다.

지분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금융권은 연내 예보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한 뒤, 내년 상반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주사 전환 뒤에 예보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의무보호예수 문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4658달러 돌파… 비트코인 질주 어디까지

매수세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워
"北 미사일 日 관통 불안심리 반영"
日 결제수단 인정 안전자산 인식도
골드만삭스 "4827달러까지 뛸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관통 소식에 불안심리가 비트코인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피넥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9일 4658.80 달러로 거래돼 전고점 4492.3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우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29일 오전 일본 상공을 지나 2700km를 날아간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에 생긴 공포심이 비트코인 매수가 급증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많은 나라로 최근 정부가 공식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인정하면서 사용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인식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안전자산이란 인식도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이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 지엽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투자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편입하면서 시장의 성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골드만삭스는 연내 비트코인의 가격을 현재가보다 상향 조정하는 전망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세바 자파리 골드만삭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달 15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수준인 4300달러선에서 500달러 더 오른 4827달러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닿은 후에는 2221달러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달 초, 비트코인이 조만간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헤지펀드들도 투자 자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편입시키고 있다.

미국 펀드관리회사 맥스토버앤코는 25개의 디지털 화폐 관련 서비스를 추가했다. 회계전문기업 아서 벨은 현 15명의 펀드매니저에 20명의 디지털 화폐 전문가를 충원할 예정이다. 투자관리법률회사 콜리프리에먼앤말론은 최근 7개의 가상화폐 펀드를 출시했으며 앞으로 17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K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단계별 육성 나선다

육성공간 'KB 이노베이션 허브'
기업들 모인 강남으로 확장 이전
전문멘토단이 특허·홍보 등 제공
이미 8곳 입주…20곳까지 가능

30일 오후 써로마인드로보틱스 장병탁(왼쪽부터) 대표, 시스트란 박내진 이사, 이와이엘 정부석 교수, 제노플랜 강병규 대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해빗팩토리 정윤호 대표, 더페이 조병찬 대표, 어브로딘 강호열 대표, 플라이하이 김기영 대표가 KB이노베이션 허브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

KB금융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육성한다. 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전문멘토단의 컨설팅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핀테크 스타트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KB금융은 핀테크 기업 육성공간인 'KB 이노베이션 허브'를 기존 KB국민은행 명동별관에서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금화빌딩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31일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벤처캐피털(VC)이 밀집돼 대외 협력과 투자유치가 용이한 강남 지역의 선호도가 반영됐다"며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KB금융은 이번 확정 이전을 계기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KB이노베이션 허브는 공유오피스 전문업체인 패스트파이브와의 제휴를 통해 약 20개의 기업이 동시에 입주 가능한 200평 규모의 오픈형과 협력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곳에서는 KB금융 계열사, 전문멘토단 및 전문 육성기관이 공동 설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오픈형 공간으로 입주하게 된다.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및 전문멘토단이 제공하는 육성 프로그램(주별 2~3회 제공) 이수를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특허, 세무·회계, 홍보·IR, 보안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KB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멘토단을 엄선했다.

전문멘토단에는 삼일회계법인, 두호특허법인, 핀란드·이스라엘 대사관, LG유플러스, 본투글로벌센터, 금융보안원 등 총 18개 회사가 참여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헤브론스타, HwBC, 로아인벤션랩, D.Camp, 벤처스퀘어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10여 곳의 멘토를 추가했다.

협력형 공간은 KB금융 계열사 협업기업 8개사가 이미 입주한 상태며, 오픈형 공간은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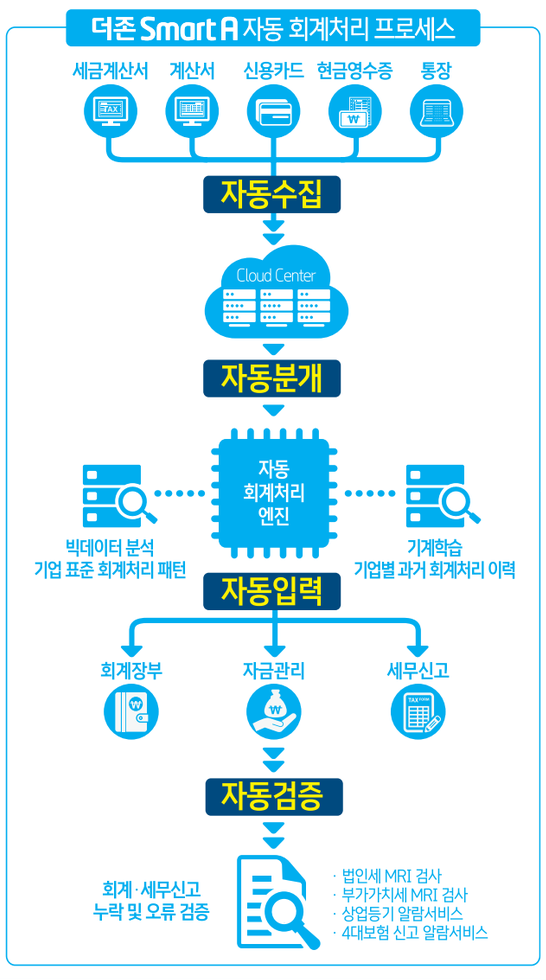
장효진 기자 js62@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중국보다 인도” 총공세 나선 현대車

中 사드 보복에 인도로 눈돌려
지난주 5세대 신형 베르나 출시
2020년까지 매년 신모델 2대씩
소형차급·SUV 등 라인업 강화

중국 시장에서 ‘악전고투’ 중인 현대자동차가 위기 타개를 위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신차 출시를 통한 라인업 강화에 나섰으며 향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0년까지 매년 2대의 신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31일 인도 현지 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신차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22일 5세대 신형 베르나를 출시한 것이다. 베르나는 2011년 인도에 첫선을 보인 현지 전략형 모델로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 판매된다. 현대차는 신차 효과를 통해 판매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2020년까지 매년 2대의 신차를 출시해 인도 시장에서 입지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주력 제품군인 소형차급 모델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UV 라인업 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영기 현대차 인도법인장은 “내년 7~9%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19년까지 SUV 비중을 25%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드 보복 조치를 중국 시장 부진의 이유로 꼽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중국 시장 대응 전략이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차는 중국 시장의 트렌드인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라인업 대응에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 토종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대차가 갖고 있던 가격 경쟁력마저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보복에 따른 후폭풍까지 겹치자 현대차의 중국 판매 부진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인도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시장인 인도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도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20년 내수 483만 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에서의 성적도 좋은 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굳히고 있다”면서 “2019년 기아차 공장까지 완공될 경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에쓰오일 ‘비전 2025’ 발표

“2025년까지 영업익 3조·시총 25조…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도약”

에쓰오일(S-OIL)이 2025년까지 영업이익 3조 원, 시가총액 25조 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25’를 발표했다.

오스마 알 감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서울 마포사옥 대강당에서 ‘비전 2025’ 선포식을 열고 “10년, 20년 후 장기 미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알 감디 CEO는 “에쓰오일의 핵심역량은 사람, 즉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들”이라며 “최고의 운영 효율성과 차별화된 투자 전략으로 새로운 비전을 달성해 2025년 영업이익 3조 원, 시가총액 25조 원을 목표로 사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고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6169억 원을 달성했고, 시가총액은 30일 종가 기준 14조3543억 원이다. ‘비전 2025’는 지금보다 2배의 성장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30일 열린 에쓰오일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오스만 알 감디(왼쪽) CEO가 임직원들과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실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알 감디 CEO는 “최고(Excellence), 열정(Passion), 정도(Integrity), 협력(Collaboration), 나눔(Sharing) 등 5가지 핵심가치로 무장해 새 비전 달성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에쓰오일의 서사시(EPICS)를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쓰오일은 이날 ‘비전 2025’의 실현을 위해 △정유사업의 강화 △화학사업 확대 △신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에쓰오일의 새로운 전략 체계는 미래 경영환경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회사 내부의 역량과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축했다. 특히 이 과정에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열망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전사적인 목표 달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진해운 법정관리 1년…

국적선사 물동량 2.4% 감소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난 부산항의 국적선사 물동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선사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7년 7월 부산항 전체 물동량은 175만2068TEU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 물동량은 35.95인 62만9190TEU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65만1046TEU) 대비 2.4% 감소한 수치다.

5월과 6월의 부산항 총물동량은 각각 178만6576TEU, 177만2740TE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적선사 물동량은 59만9230TEU, 58만9399TEU이다. 이는 전체 물동량의 33.5%, 33.2% 규모다.

지난해 국적선사의 5월 물동량(62만1941TEU), 6월 물동량(61만1416TEU)보다 각각 4.6%, 4.9% 감소했다.

반면 올해 5·6·7월 외국선사들의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다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전 3개월간의 수치라 한진해운 청산이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부산항에서 국적선사의 물동량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중소형 선사들의 약진 때문이다. 특히 SM상선이 컨테이너선 사업에 진입하면서 한진해운의 물동량을 흡수했다. SM상선은 현대상선을 제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과 네트워크를 인수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중소형 선사들의 물동량도 늘었다”며 “게다가 SM상선이 새로 등장하면서 국적선사들의 물동량 감소폭은 예상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서 승무원 꿈 키워요”

30일(수) 인천 한중문화관에서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에서 박수용(셋째 줄 왼쪽 네 번째) 부기장, 인천시 교육청 윤건선(셋째 줄 왼쪽 다섯 번째) 장학관, 아시아나항공 조영석(셋째 줄 왼쪽 여덟 번째) 상무, 김주현(셋째 줄 왼쪽 아홉 번째) 승무원, 황용희(셋째 줄 왼쪽 열 번째) 정비사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경총 “4차 산업혁명은 노 칼라 시대… 유연한 제도계획 필요”

〈no-colla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칼라(no-collar)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연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라고 정의하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괴적 기술 혁신과 자동화는 육체적 노동(Blue-collar)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전문 사무직(White-collar)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해 다양한 색이 혼재된 노칼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 4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2차 산업혁명 성공에 도취돼 그때의 습관과 조직문화, 제도를 이어가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먼저 나아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모든 표준을 장악하는 구조”라며 “한국도 제4의 물결에 걸맞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을 등장시킬 것”이라며 “빠른 적응과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前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반격 나선 신동주

부친 신격호 회장 SDJ 사외이사 선임… ‘경영권 분쟁’ 계속 이어갈듯
‘핵심 브레인’ 민유성과 자문계약 해지…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 풀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대표로 신 부회장 본인을 선임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그간 공석이던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자리에 5월 16일 올랐다. 이와 함께 기타비상무이사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조은주(현 SDJ코퍼레이션 이사) 씨를 같은 날 등기 선임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같은 노선을 함께 걷겠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신호로 평가된다. 더욱이 그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온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자문계약 해지를 계기로 자신이 직접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챙기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국내에 인맥이 전혀 없던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을 준비하면서 민 전 행장 및 그의 측근들과 손을 잡았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각종 송사와 여론전 등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DJ코퍼레이션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민 대표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9일 롯데그룹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신동빈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 밑바탕이 완성되는 등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자문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설은 경영권 분쟁 이후 1년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왔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270억 원을 무이자로 회사에 대여했다. 회사가 차입한 자금 대부분은 민 전 행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자문계약 해지를 계기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향한 신 전 부회장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무한주총’을 통해 경영권 탈환을 선언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은 동생, 일본 롯데는 자신이 경영’하는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신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재판 1심 선고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롯데그룹 총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삼성전기, PLP·전장사업 본격화

‘PLP 선행개발팀’ 신설 3분기 첫 양산화… 전장분야도 인력 보강

삼성전기가 차세대 먹거리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진출한 PLP 사업 강화를 위해 ‘PLP 선행개발팀’을 신설했고, 전장 관련 칩부품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모집에도 나섰다.

30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분기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연구소 산하에 ‘PLP 선행개발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PLP 사업에 진출한 삼성전기는 3분기 첫 양산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PLP 선행개발팀은 2~3년 후를 내다보는 차세대 상품개발 등을 담당한다.

삼성전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지난해 말 PLP사업을 시작했다. PLP란 반도체와 메인기판을 연결하는 패키지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사용하지 않는 패키징 기술이다. 기판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제조 원가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기판 기술로 통한다. 삼성전기는 총 2632억 원을 투자해 천안 공장에 PLP 양산 라인을 구축했고 3분기 중 본격 양산이 기대된다. PLP 기술이 적용된 전력반도체(PMIC)의 첫 매출도 연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PMIC용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모바일 AP에 진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가 PLP신사업에서 2018년에는 매출 3219억 원, 영업이익 422억 원을 낼 것”이라며 “2019년에는 해당 사업의 매출이 8000억 원을 넘어서며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장 분야 역시 삼성전기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이 회사는 전장 및 산업기기용 칩부품 개발을 담당하는 박사 경력 직원 채용에도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 자회사인 미국 전장업체 하만과의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경영자서 조언자로… 한국지엠 떠나는 제임스 김

오늘 사장 퇴임… 고문으로 활동

제임스 김〈사진〉 한국지엠 사장이 31일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제임스 김 사장은 이후 한국지엠에서 조언자 격인 고문을 맡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직에 전념할 예정이다.

3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제임스 김 사장은 별도의 퇴임행사 없이 대표 자리를 카허 카젬 신임 사장에게 물려준다. 그간 한국지엠이 별도의 퇴임식이나 이·취임식이 없었던 데다, 판매 부진으로 철수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용하게 퇴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임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됐다”면서 “고문으로 남아서 활동하니 직원들도 힘을 내서 일해 달라.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퇴임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임금 협상, 판매 부진, 경쟁력 향상 등 해결해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에 대해 노력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고문직을 수행하게 될 그가 암참 회장으로 한미 양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통상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달 사임을 표명한 이후, 신임 사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암참과 한국지엠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SNS와 '유통 궁합' 맞춘 GS홈쇼핑

온라인 유명인사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에 투자
"개인 간 온라인 상거래가 트렌드
한국도 규제 풀리면 더 기대"

스타트업 '파리스타' 네트워킹 파티
SNS 스타 등 300여명 출동

GS홈쇼핑이 투자 지원하는 스타트업 '파라스타'의 첫번째 행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사옥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 GS홈쇼핑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가 모바일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중호 GS홈쇼핑 마케팅부문장(상무)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 플랫폼 '파라스타'의 네트워킹 파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상무는 이날 "그동안 유통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 마진을 통해 수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콘텐츠와 상품을 갖춘 이들이 직접 SNS, 유튜브를 통해 팬층을 확보하고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유통회사가 중간에 껴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검색, O2O 등 다방면 벤처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GS홈쇼핑이 스타트업 '파라스타'를 점찍었다. 이 스타트업은 코미디언으로 얼굴을 알린 오종철 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5월부터 GS홈쇼핑 사옥 한 편에 자리를 잡았다.

파라스타는 25일 인플루언서 네트워킹을 통해 첫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데니스홍 UCLA 기계공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SNS 스타, 온라인 쇼핑몰 CEO 등 300여 명이 총출동했다.

현장을 찾은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역시 소비 패러다임 급변에 발맞춘 GS홈쇼핑과 파라스타의 대응전략에 대해 호응했다. 김 대표는 "이런 변화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왕홍(중국 인플루언서)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글로벌 추세"라며 "가까운 시일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개인 간 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풀릴 것으로 본다. 파라스타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GS홈쇼핑은 전폭적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상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한 곳당 초기 투자액만 1억~3억 원 수준으로 2011년부터 누적 1700억 원 이상 규모를 투자했다. 간접 투자까지 포함해 GS홈쇼핑이 전 세계에 투자한 스타트업 수는 3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팀에 자금 투자뿐 아니라 GS홈쇼핑 사옥 내 사무공간을 지원해 주고 GS홈쇼핑 MD, PD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까지 지원하며 사업화 과정을 돕고 있다. 지난해 1기, 2개 창업팀의 경우 2~3개월 내 서비스를 실행하는 빠른 성과를 냈다. 올해도 파라스타를 포함한 2기, 2개 창업팀을 육성 중이다.

장중호 상무는 "GS홈쇼핑은 소비 축이 점차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던 참에 가장 앞선 시도를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게 돼 과감하게 투자하게 됐다"면서 "(기존 유통사업자로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금 이대로는 설 곳이 없어진다. 5년에서 최대 10년 지나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GS홈쇼핑도 파라스타를 적극 육성해 많은 시도를 통해 새로운 유통의 모습을 만들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배춧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고랭지 재배단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 속칭 안반데기에 28일 농작물 절도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 배추로 불릴 정도로 높은 배춧값에 최근 관광객까지 많이 몰리면서 예년에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오른쪽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을 4950원까지 할인 판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金값 된 채소…안전 금간 계란
소비자 장바구니 한숨만 가득

폭우로 작황 나빠 채소 값 고공행진
배추 1포기 6800원, 상추 100g 1600원

달걀, 살충제 파동 후 소비자 불안 계속
한판 5000원대로 하락, 매출도 40% 뚝

"계란 값은 내렸는데 살충제 달걀 파문 때문에 사면서도 찜찜해요. 배추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싸대요? 정말 집에서 닭 키우고 채소 재배해야 할 판이에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최모(34) 씨는 채소 코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채소 매대에 써붙여진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980원. 결국 배추를 담지 못하고 빈 카트로 한 바퀴를 돈 최 씨는 계란을 카트에 담다가 다시 꺼내 농장 난각 코드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수요가 줄어 계란 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폭우로 배추, 상추 등 채소 값은 치솟고 있어 추석 식탁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배추 한 포기는 6000원에 육박했다. 이날 이마트의 배추(2kg 내외) 한 포기 가격은 5980원으로 지난 7월 3980원보다 한 달 사이 2000원(50%)이나 올랐다. 홈플러스도 한 달 전 3990원이던 배추 한 포기 값이 5490원으로 뛰었다. 롯데마트 역시 5490원에 판매됐다. 이날 백화점의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만 원 안팎으로 '금배추'를 실감나게 했다. 신세계백화점이 1만1500원, 롯데백화점은 8900원, 현대백화점은 7000~8000원이었다. 무(1500g)도 신세계백화점 3980~5500원, 롯데백화점 3500~4500원, 현대백화점 3000~3500원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는 29일 기준으로 1포기에 평균 6800원이다. 비싼 곳은 8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3일 1포기 평균 2356원에 비하면 포기당 170%나 오른 셈이다. 무는 지난달 3일 평균 1786원에서 현재 2883원으로 올랐으며 오이는 5593원에서 1만82원, 호박은 876원에서 2163원으로 두어 달 새 2~3배 가량 올랐다. 상추 역시 지난달 3일 100g에 639원에서 현재 1604원으로 2배 이상 올랐으며 양배추는 한 포기 평균 2485원에서 현재는 4747원이다. 또 시금치(1kg)는 같은 기간 4506원에서 1만4688원으로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7월에 이어 8월까지 이어진 많은 비가 채소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채소류의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경우 작물 피해가 심각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양양 지역은 이날까지 지난 1~5일, 8일, 12일, 22일을 제외한 날에 비가 내렸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강우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때 1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금란'으로 불렸던 계란은 한 판 가격이 5000원대로 떨어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품귀 현상을 겪다 확 꺾인 것이다. 대형마트 판매 계란 가격이 30알 한 판 기준 6000원대가 깨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2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4950원으로 5000원대가 깨졌다.

대형마트 3사의 계란 매출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30~40%나 급감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16~26일 이마트의 계란 매출은 살충제 성분 검출 발표 직전인 2~12일 대비 44.2%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계란 매출도 35% 감소했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살충제 여파로 인한 소비불안 심리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물가가 오르는 만큼 계란 가격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 불신과 함께 당장 다가올 추석 물가 불안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업주부 백모(57) 씨는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맘 놓고 장보기가 어렵다"며 "올 추석은 채소 값과 과일값이 올라 풍족한 명절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롯데百 '두드림 센터' 통해 청년취업 지원

부산 지역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롯데백화점은 '두드림 센터'를 허브로 삼고 부산 지역의 청년 취업, 문화 활동 지원한다.

23일 오픈한 '두드림 센터'는 부산지역 청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이 건축 및 인테리어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향후 20년간 부산시에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드림 센터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별관 증축 부분에 총 면적 918㎡(약 278평),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1층에는 문화전시공간(갤러리)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특설 매장, 2층에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장, 사무실 등이 마련된다. 3층 옥상 테라스에는 청년들의 휴게공간 및 야외전시, 무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향후 두드림 센터의 운영을 맡으면서 지역 청년 취업과 아르바이트 상담지원, 청년고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문화사업, 청년문화단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청년작가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두드림 센터' 외에도 청년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양여대, 부산여대 등의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백화점 MVG라운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서비스 전문 인재 확보 활동을 진행했다. 2011년부터는 패션과 유통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이색 마케팅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진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스 프로그램 '샤롯데 드리머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은 부산·경남 지역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과 캠퍼스 리쿠르팅, 잡카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는 "최근 청년 취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두드림 센터' 오픈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롯데백화점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두드림 센터'를 기점으로 청년들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고령화시대’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귀한 몸

병원 가까울수록 집값 오름폭 커
기존 시설 확장도 주변 시세에 영향

‘래미안 강남…’ ‘신반포 센트럴자이’
10분 거리 단지 내달 분양 잇따라

대형병원 인근 신규 아파트 ※출처: 각 사 및 닥터아파트

사업명	위치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	분양시기	건설사
대신 2차 푸르지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815(415)	39~98	분양중	대우건설
신반포 센트럴자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72-2	757(142)	59~114	9월	GS건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2296(208)	59~136	9월	삼성물산
광주 계림8구역 중흥S-클래스	광주 동구 계림동 493 계림8구역	2336(1168)	59~117	9월	중흥건설
신촌지구 동원로얄듀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4-22	431(341)	59~84	9월	동원개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는 수요층이 늘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31일 행정차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비율 중 65세 이상이 13.8%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노년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진과 간호인력이 상시 준비된 대형병원과 접근성이 좋은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직업 특성상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고 해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도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과의 접근성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고 있다. KB부동산 7월 24일 기준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옆에 위치한 ‘도곡1차아이파크’는 전용면적 130㎡ 매매가의 일반평균이 13억5000만 원이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도곡2차아이파크’는 면적이 더 넓은 전용면적 148㎡ 매매가 일반평균이 13억2500만 원이다.

기존 병원의 확장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3년 3월 1077억 원을 투자해 기존 923병상 규모에서 암병동과 뇌신경병동 477병상을 추가하며 1400병상 규모로 확장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확장 이후 이곳에서 차로 10분이 걸리지 않는 까치마을(대우롯데선경)은 현재까지 전용 84㎡ 일반평균 매매가가 4억95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1억6500만 원 상승했다. 같은 구미동이지만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무지개마을(대림)은 이 기간 동안 4억500만 원에서 4억6000만 원으로 55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형병원 인근을 강조하는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병원 3곳이 인접한 서대신동에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한 ‘대신 2차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단지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자이’ 역시 단지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차량으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9월 중흥건설이 ‘광주 계림8구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9월 분양 예정인 대구 ‘신촌지구 동원로얄듀크’는 영남대학교병원을 차량으로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연내 54곳서 2만7000가구 분양

서울, 과천,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2만7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3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2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54개 단지, 2만7212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8단지 재건축(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등이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그랑자이’(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 ‘당산 아이파크 퍼스티어’(영등포구 당산동5가 상아 현대 재건축) 등이 나온다. 또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세종시 2-4생활권 ‘꿈에그린’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구주여야 하며,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동일 가구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고, 배우자는 가구를 분리해도 동일 가구로 본다.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1건이며, 소급적용으로 기존 중도금 대출로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내달 입찰 강남 재건축 공사비만 4조3000억

대형 건설사 “우리가 강남 접수”

반포주공1·방배5 등 6개 단지 시공사 선정

내달 서울 강남권 6개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격돌한다.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 등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단지들로 총공사비만 4조3000억 원을 넘어선다. 대형건설사들의 올해 수주 농사를 결정짓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강남권 6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한다. 방배5구역을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3·14·15차, 방배13구역 등으로 이들 사업장은 공사비만 4조3361억 원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입찰에 나서며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포문을 여는 곳은 방배13구역이다. 1600여 가구의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을 2296가구로 새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5753억 원이다. 현재 이곳 수주전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내달 2일 열린다.

신반포13·14·15차는 각각 롯데건설과 효성건설, 롯데건설과 동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중이다. 강남권 내에서 재건축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견건설사들도 수주전에 나섰지만, 강남권에서 브랜드 파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전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롯데건설이 3곳의 시공권을 모두 손에 넣는다면 한꺼번에 총 3716억 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리게 된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결과는 내달 9일 나온다.

같은 날 방배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공사비만 7492억 원 수준으로 단독입찰에 나선 현대건설이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57가구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당초 대형건설사 9곳이 눈독을 들였지만 높은 진입장벽에 입찰이 3회 연속 유찰되면서 결국 현대건설이 무혈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매치는 내달 28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벌어진다. 5388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애초에 입찰보증금 역시 1500억 원 수준이어서 자금력이 탄탄한 대형건설사들 위주로 입찰이 가능했다. 아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물밑 경쟁에서부터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나선 만큼 2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최대어인 만큼 양측은 프리미엄 설계와 브랜드, 자금력 등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주전 채비에 들어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월까지 주요 사업장에서 강남권과 부산 등 여러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많지만, 9월의 경우 강남 주요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대거 몰린 만큼 수주고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여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국토부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대림산업 신뢰도 영향 우려, ‘어쩌나’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여부 등 두달간 조사

국토교통부가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평택국제대교의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에 파견, 평택국제대교의 부실시공을 포함한 모든 사고 원인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조사 중에 있다. 조사는 10월 27일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 등 산업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국제대교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로 평택시 현덕면과 아산시 둔표면을 잇는 다리의 가칭이다. 이 다리는 26일 교각 위에 설치하던 상판 4개가 바닥으로 내려앉으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려앉은 4개의 상판 중 1개의 교각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리의 교각이 시공 중 붕괴될 때는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는 후진국형 인재 사고”라고 규정하면서 “철산대교 붕괴, 남양주 진접선 공사장 안전사고 등 턴키 및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공공사의 부실시공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공사 사업의 부실시공이 연이어 발생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의 시공에서도 안전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 2013년 2월 정식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약 1년이 지난 2014년 10월경에 심한 흔들림 현상으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바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너도나도 '조커'… 혼돈의 도시바 반도체 매각

WD 진영 인수 승기 잡았으나 경영권 놓고 의견차 해소 못해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 '애플 참여' 새로운 제안 제시

경영권은 일본측이 쥐는 걸로

밀려났던 대만 혼하이공업도 손정의·구글 손잡고 타진 중

웨스턴디지털(WD)을 축으로 한 미국·일본 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인수전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이 매각 조건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른 경쟁자들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도시바메모리' 매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는 WD 진영과 독점 협상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바 이사회가 WD와 사모펀드 KKR,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미일 연합에 독점협상권을 줄지, 우선협상대상자 전환에 그칠지가 최대 관건이다.

쓰나카와 사토시〈사진〉 도시바 사장은 이사회에 앞서 전날 주거래 은행들을 방문해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쓰나카와 사장은 "세부 사항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여전히 WD 진영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도 WD 진영으로 협상 대상을 일원화하려는 도시바의 방침을 높이 평가했다.

도시바와 WD 측은 2조 엔(약 20조 4478억 원)에 달하는 매각액과 도시바메모리의 향후 기업공개(IPO)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은 INCJ 등 일본 측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는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WD는 인수가 가시화하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법적 조치를 취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은 WD가 도시바메모리 경영에 관여할지를 놓고 의견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 스티브 밀리건 WD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이 새 제안을 내놓으면서 판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은 앞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지분 참여 의사에 따른 갈등, 소송을 불사한 WD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인수가 무산됐다. 그러나 한미일 연합은 애플도 인수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런 반격을 주도한 것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다.

구체적으로 새 제안을 살펴보면 인수액은 2조 엔 수준을 유지한다. 도시바와 WD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베인캐피털과 도시바가 각각 의결권 기준으로 46.5%의 지분을 보유한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000억 엔의 자금을 제공하며 애플은 3000억~4000억 엔 규모의 우선주를 취득한다. 도시바와 WD의 갈등 해소를 출자 조건으로 내건 INCJ의 참여는 일단 보류시킨다. 국제중재법원이 WD의 도시바메모리 매각 요청을 기각해 법적 문제가 해소되면 도시바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 대신 INCJ가 50.1%, 일본정책투자은행이 11.6%의 지분을 보유해 여전히 일본 측이 경영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를 유지한다.

중국 세력이 첨단 반도체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부감에 인수전에서 밀려나 있던 대만 혼하이정밀공업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구글과 제휴하는 등 인수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놓고 각 진영이 연일 새 카드를 내놓으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경에는 도시바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시바메모리 매각 방침이 계속 흔들리면서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바는 WD가 이미 인수 협상 초기부터 법적 대응 등 강공책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는 데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과 우선협상에 나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대신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주거래 은행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도시바는 결국 이달 24일 경영진 회의에서 WD와의 매각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WD와도 속시원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미일 연합과 혼하이 등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사실 도시바다. 도시바는 매각을 통해 2조 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올해 말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해 상장이 폐지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경영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도시바메모리 인수전 진행 사항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1 웨스턴디지털(WD) 주도 미일 연합

- 도시바, 31일 이사회 열어 WD 진영과의 독점 협상 진행 방침 확인 전망
- WD 진영에 독점 교섭권을 줄지 우선협상 대상 전환에 그칠지 초점
- WD는 2조 엔을 인수액으로 제시
- 산업혁신기구(INCJ)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일본 측이 의결권 과반수 보유에는 일치
- WD의 도시바메모리 경영 관여를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하고 있어

2 SK하이닉스 포함 한미일 연합

-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SK하이닉스 지분 보유 등 놓고 갈등 불거져
- WD의 소송 제기 등 강한 반대로 협상 결렬
- 도시바와 WD의 법적 분쟁 해소가 최대 관건
- 애플을 인수에 참여시키는 새 방안 제시
- 애플이 최소 3000억 엔, SK하이닉스가 2000억 엔 자금 제공

3 대만 혼하이정밀 – 소프트뱅크, 구글과 제휴하는 등 인수 포기하지 않아

베조스-나델라 'AI 비서' 제휴

〈아마존 CEO〉 〈MS CEO〉

'알렉사·코타나' 친구 맺어줬다

올해 말부터 연동 서비스

음성인식 기능 개발 경쟁 속

IT 공룡 두 기업 협력 주목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자 개발한 인공지능(AI) 비서를 서로 연동되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왼쪽)는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알렉사에 새 친구가 생겼다"며 이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올해 말부터 MS의 AI 비서 코타나로 알렉사를 실행시킬 수 있고, 그 반대로 알렉사로 코타나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베조스는 코타나에서 MS의 인기 프로그램인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능 면에서의 통합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분야에서 그간 협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두 IT 공룡이 손을 잡았기 때문. 지난 수년간 아마존은 물론 애플, MS,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음성인식 기능 개발에서 앞다퉈 경쟁해왔지만 이제까지 해당 기술 개발 협업에 나선 기업은 없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베조스 CEO 모두 AI 비서가 연동되는 것을 막는다면 이들의 개발이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개별 AI 비서마다 가진 강점이 경쟁 AI 비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나델라는 이날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타나와 알렉사의) 각자 개성과 전문성이 상호 운영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실에 나와 베조스는 공감했으며 우리 팀들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한 해 두 AI 비서의 연동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파트너십은 지난해 5월 베조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MS와 아마존의 두 CEO는 시애틀 지역의 한 기업인 행사에서 만났고, 베조스가 나델라에 양사의 AI 비서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해 양측의 파트너십 조율이 시작됐다.

다만 베조스는 애플이나 구글에는 이러한 연동 제안을 하지 않았다. 이에 베조스는 "다 함께 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들이 우리의 파트너십에 자극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이 이러한 AI 비서 파트너십에 참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구글과 애플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자체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굳이 AI 비서를 다른 경쟁업체의 같은 서비스와 연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MS와 아마존 모두 자사 AI 비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자체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두 회사가 힘을 합치기로 한 셈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日 방문 메이 英총리 "전통차 맛이 좋네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가 30일(현지시간) 교토에 있는 다도의 명가 '오모테센케 후신 안(表千家不審菴)'에서 일본 전통차를 시음하고 있다. 메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곳에서 약 1시간 동안의 다과회 이후 교토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메이 총리는 이틀간의 일정에서 아베 총리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AP연합뉴스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신임 CEO가 30일(현지시간) 전 직원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우버 트위터

코스로샤히 우버 신임 CEO 취임 첫 일성은 "3년 내 IPO"

변화·시장점유율 회복 강조

"이사회 의장도 빨리 찾을 것"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스로샤히 신임 CEO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전 직원이 모인 '올핸즈 미팅(all-hands meeting)'에서 우버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코스로샤히는 다음 주 CEO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취임 첫 일성에서 "이 회사는 변화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사업을 제대로 꾸리고 막대한 손실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경쟁사인 리프트에 빼앗겼던 시장점유율을 되찾아야 한다"며 "아울러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이 리스크가 크지만 (혁신적인)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IPO에 대해서도 "18~36개월 안에 증시에 상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제안했다. 이는 가능한 한 늦게 증시에 상장되기를 바란다는 트래비스 칼라닉 전 CEO의 방침과 대조적이다.

코스로샤히는 우버 이사회 의장도 빨리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칼라닉 사임 이후 70일 가까이 신임 CEO를 찾는 과정에서 분열됐던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한편 우버 대주주인 벤치마크가 칼라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중재로 전환됐다. 델라웨어 주 법원은 이날 본 소송건은 중재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칼라닉은 소송 과정이 공개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우버도 신임 CEO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코스로샤히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잘못된 기업문화로 만신창이가 된 회사 내부 분위기를 추스려야 한다.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각국 규제당국과의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우버가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경제 3% 성장했다고?… 버핏 "체감은 2%"

상무부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시장 예상치 뛰어넘는 '高성장'

버핏 "트럼프 경제정책 못 믿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 계속 표류하는 와중에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이런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3%라고 발표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 2.6%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동시에 3.2%를 기록한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이 개선되고,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된 게 주요인으로 꼽혔다.

AP통신은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성장률 3% 달성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최근 국정 운영에서 위태로운 행보를 보이며 세제 개혁안이나 인프라 투자 면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던 중에 이번 GDP 성장률 발표는 미국 정부에 고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스의 마이클 가펜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미국 GDP는 미국 내 수요의 견고한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다"며 "현재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수정할 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핏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버핏은 "GDP 성장률이 3%대인 것 같지 않다"며 "체감상 2% 성장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매 순간 우리는 경제성장률이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더블딥 같은 때나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가 침체 뒤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뜻한다.

버핏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믿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어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며, 비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단언했다.

버핏 회장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클린턴이 선거에서 패한 데 대해 그는 "당시 패배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CSR, 기업 이미지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고연순 엘지유플러스 팀장, 윤경CEO클럽 강연

육해공군 부대에 휴대폰 보급
장애인 가정에 홈 IoT 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전기료알리미

"당장 눈앞의 수익 기여 못해도
장기적 관점서 CSV 고민해야"

LG유플러스 고연순 팀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8월 정례모임에서 '엘지유플러스의 사업연계 CSR'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기업은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SV(공유가치창출)를 고민할 때가 됐다."

고연순 엘지유플러스 팀장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사업과 연계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의 강연자로 나선 고 팀장은 "LG유플러스와 SKT, KT는 경쟁사 관계이고 사업구조와 서비스가 유사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CSV는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엘지유플러스의 CSR팀이 실행해온 프로젝트들에 대해 소개했는데 군인,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그는 "전방 군부대 자살률이 1년에 150명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들었다"며 "문제의 원인이 소통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공용휴대폰 무상 보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전국 육해공군 내무반 4만여 곳에 4만 3000여 대의 휴대폰을 보급했고 현재까지 누적 4억6000만 건의 통화가 이뤄졌다.

장애인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고 팀장은 "장애인들이 외출시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집안 전기기기를 제어할수 있도록 장애가정 홈 IoT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청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1200여 가정에 기기와 서비스를 평생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혜택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회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엘지유플러스는 이를 기반으로 TV광고를 기획해 회사의 사회공헌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도 했다.

회사는 최근엔 국내 200만 독거노인 가정을 위해 독거노인 IoT전기료알리미 지원을 시작했다. 에너지미터를 각 가정 배전반에 설치하고 모바일 모듈을 개발,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전기 사용량이 없는 독거노인 가정을 체크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

고 팀장은 "기업의 CSR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라며 "사회적 공헌이 당장 눈앞의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애매모호한 점이 많지만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CIA 분석관 출신 박정현 박사
美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에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코리안 체어)에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선임분석관을 지낸 박정현〈사진〉 박사가 임용됐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 출신인 박 박사는 헌터 칼리지 겸임교수를 거쳐 오랜 기간 CIA와 DNI에서 근무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실무를 경험했다.

인사

◆**통일부** 〈고위공무원전보〉 △정세분석국장 정승훈 △교류협력국장 이주태 △공동체기반조성국장 김병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박철 △남북출입사무소장 강종석

◆**현대차그룹** ◇**지아이티** 〈승진〉 △대표이사 장윤경 ◇**현대모비스** 〈전보〉 △홍보실장 이화원 ◇현대기아차 〈전보〉 △홍보1실장 허정환 △신문홍보1팀장 김도학 △신문홍보2팀장 이영호 △홍보지원팀장 원영덕

◆**에쓰오일** △정유생산본부장 이민호 △화학생산본부장 박승구 △케미컬사업본부장 배중호 △국내영업부문장 하태우 △서부지역본부장 이동언 △정유해외영업부문장 김태헌

◆**세종대** △사회과학대학장 손승혜 △자연과학대학장 강종민 △공과대학장 홍성경

◆**충북대** △교무처장 김진식 △교무부처장 겸 창의융합교육본부 부본부장 겸 교양교육센터장 겸 자율전공학부장 김남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한재영

◆**KBS** △부사장 이종욱

◆**CBS** ◇**전남CBS** △특임국장 윤승훈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고영호

◆**건설경제신문사** 〈승진〉 △전무 강한철

◆**광남일보** △대기자 김옥조 △편집국장 김상훈

홍준표 부인 '내조 워크숍'으로 남편 氣살리기

〈자유한국당〉

이순삼 여사 주도 한국당 의원 아내 70명 모여 친목도모
"당이 어려운 상황… 활로 모색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인 이순삼〈사진〉 여사가 본격적으로 내조 정치에 팔을 걷어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돼지발정제 논란으로 고전하던 홍준표 후보 구하기에 나섰던 이 여사가 이번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겪는 한국당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는 줄곧 "의원 부인들이 지역구에서 내조를 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이 다시 일어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달라는 것이다.

이에 이 여사는 '국회의원 부인 워크숍'을 제안해 30일 한국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당 의원 부인들이 워크숍을 열고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의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의원들을 내조해온 부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당 남성 의원들의 부인 92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두고 당내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번 모임이 '친홍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 여사를 주축으로 내부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부 친박계 의원의 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워크숍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부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만찬에서는 이 여사를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의 부인 이옥배 여사, 심재철 국회부의장 부인 권은정 여사가 인사했다. 아울러 최고위원들의 부인과 사무총장, 부총장 부인들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이 여사의 내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여사는 지난 5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때도 전국을 돌며 남편을 도왔다. 당시 이 여사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배식봉사를 한 뒤 "홍 후보는 약자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이다.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홍 후보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롯데그룹, '맘편한 놀이터' 1호점 오픈

부산 아동복지시설 새들원에 설치…"매년 5개소 이상 리모델링"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준비한 'mom편한 놀이터' 1호점을 30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새들원에 오픈했다.

'mom편한'은 롯데가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2013년 론칭한 롯데의 사회공헌 브랜드다. 이번에 오픈한 'mom편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집 밖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에서 기획됐다. 롯데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공공 놀이터를 매년 5개소 이상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mom편한 놀이터' 1호점이 설치된 부산시 동래구 새들원은 7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금정산 자락의 자연 속에 위치하고 공원처럼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픈돼 지역사회 엄마들의 소통 공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픈 행사에 참석한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mom편한' 브랜드를 통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부음

▲**박창임**씨 별세, **이홍탁**(별내토마토 부동산 대표)·**홍기**(연합뉴스 전무이사)·**홍재**(영등포구청 팀장)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8시, 02-2258-5940

▲**조문희**씨 별세, **이재충**(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재능**(IFG파트너스 대표)·**재욱**(노은환경개발 대표)씨 모친상, **정길·최익한**(실리콘패스 대표)씨 장모상, **조일수**(전 MBC아나운서)씨 시모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 02-3010-2000

▲**채영철**(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6시, 02-2258-5940

▲**박영훈**(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별세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10시, 02-3010-2292

▲**강혜선**씨 별세, **박현수**(삼성SDS 공통실행팀 부장)씨 부인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11시 20분, 02-3010-2232

한국여성 인물사전 〈187〉손장순(孫章純)

프랑스 문학·사상을 한국적으로 문화번역

손장순(孫章純·1935~2014)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졸업 후 서울대 불문과에 진학했다. 프랑스 문학에 매료되어 작가의 꿈을 품고 전공을 결정한다. 1958년에 '입상(立像)', '전신(轉身)'이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으로 데뷔했다. 장편 '한국인(韓國人)', '세화의 성(城)'을 대표작으로 남겼다. 1969년부터 한양대 불문과에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손장순은 근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변동을 여성 지식인의 눈으로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녀는 전후 한국의 문화 담론을 강타한 전후파(戰後派) 여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녀가 그려낸 전후파 여성은, 현대 여성을 정조 관념이 없고 타산적(打算的)이라고 폄훼하는 가부장제 담론과 구별된다. 서구 문명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전후파 여성을 부덕(婦德)을 넘어서 개인의 윤리를 추구하는 신인류(新人流)로 표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인'(1966~69)은 손장순의 출세작이다. 이 소설의 서문에서 작가는 "8·15와 6·25를 계기로 밀물처럼 들어온 서구 문명과의 혼합 속에서, 자기의 것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남의 것도 소화시키지 못한" 한국인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썼다. 그녀는 이상화되어온 남성성의 베일을 벗기고 그 허약함을 포착하는 식의 급진성을 보인다. 작중 남성들은 1960년대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속물화의 양상 속에서 부와 권력을 얻지 못해 열등감에 시달린다. 반면 여성들은 근대화의 허위를 꿰뚫어 보고 주체적 개인으로 서려는 실존주의자이다.

손장순은 프랑스 문학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한국적으로 문화번역(文化飜譯)한 작가이다. 불문학자로서 실존주의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사상을 소개하고, '위기의 여자'를 번역했다.

또한 한국 문학사에서 드물게 국가 간 경계(境界)를 넘나드는 이동(移動)의 서사를 선보였다. '한국인', 단편 '우울한 파리', '미세스 마야' 등에는 한국인 서구 유학생이나 한국 내 이방인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은 서구를 참조 대상으로 삼아 한국의 졸속 근대화 양상을 비판하는 한편, 선진국/후진국, 서양/동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주변의 위계적 이분법을 비튼다.

손장순은 1965년에 아들을 하나 둔 채 이혼한 후 1985년 언론인 임승준과 재혼했다. 1996년 한양대를 퇴임한 후 문예지 '라플륌'의 발행인 겸 편집자로 활동했다. 한국소설분과협회·한국불문화협회·한국여류문인협회·국제펜클럽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최고위원을 지냈고, 한국여류문학상, 국제펜클럽 소설문학상, 유주현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 모교인 서울대에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듬해 서울대에서는 손장순 부조(浮彫) 제막식 및 평전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이호재 회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가나아트갤러리·문화재단 설립
미술작품 공익화·대중화 기여"

글로벌 명품 브랜드 몽블랑은 '제26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의 한국 수상자로 이호재(60) 가나아트·서울옥션 회장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호재 회장은 가나아트갤러리와 서울옥션, 가나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한국 미술시장을 이끌며 한국 미술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알려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점과 작가 지원 및 미술품 기증을 통해 미술작품의 공익화와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983년 서울에 가나아트센터를 설립한 이 회장은 국내 최초로 로댕, 샤갈, 호안 미로, 세잔, 모네, 르누아르 등을 소개했다. 1986년 파리 시테에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시스템에 한국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 작가들을 위한 파리의 아틀리에 소나무 설립을 지원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다.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후원자들을 선정해 경의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9월 26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이 회장은 1만5000유로의 상금과 특별 제작한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펜'을 함께 받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 보성군 홍보대사에

"녹차 우수성 국내외 알릴 것"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권〈사진〉 셰프가 30일 전남 보성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두바이 7성급 호텔인 버즈알아랍 수석 총괄 주방장 출신으로 현재 랩 24와 엘리먼츠 레스토랑 총괄 셰프인 권 셰프는 녹차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기로 소문나 있다. 그는 "보성의 역사와 문화, 관광, 축제는 물론 녹차를 재료로 만드는 음식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보성녹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셰프는 2011년 세계미식가 정상회의 마스터 셰프, 2011~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갈라디너 담당, 2013년 세계 최고 요리 경연대회 보퀴즈 도르 명예회원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촉패를 받은 후 그는 세계 시장의 언어·문화 장벽을 극복한 과정과 과감하게 투자했던 경험, 누구보다 엄격한 총 주방장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널리 알리는 든든한 보성군 홍보맨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IBK동반자금융

56th ANNIVERSARY

1 중소기업금융

잘하는 것부터 혁신한다!

: IBK의 첫번째 혁신 **[동반자금융]**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이
더 능동적이고 더 창의적인 **[동반자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01 성장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금융

02 재도약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금융

03 선순환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금융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치맥' 대신 '치막'은 안될까?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로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치막'은 '치킨+막걸리'로 필자가 생각해 본 말이다. 치킨은 병아리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닭튀김을 아우르는 말이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안주와 식사 대용 음식이다. 치킨에다 맥주를 곁들이면 맛이 괜찮은 데다, 한류 드라마의 덕분으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끔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열기도 한다.

맥주는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양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다. 맥주의 역사는 고대 수메르나 이집트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현재의 맥주는 중세 이후 벨기에, 체코,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크게 발전했다. 맥주의 종류는 크게 상면발효 방식으로 만든 조금 탁한 에일맥주와 하면발효 방식으로 만든 맑은 라거맥주로 나뉜다.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는 제조방식과 사용 원료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종류가 아주 많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 일본인이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보면 우리 방식의 맥주가 예전부터 있었다. 당시의 맥주는 보리를 주된 원료로 하여 전통 막걸리와 전통 청주를 빚는 것과 같이 누룩을 사용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현재의 맥주는 맥아(엿기름)와 호프, 효모와 물을 기본 원료로 만든다. 여기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 등이 첨가되기도 한다. 맥주는 맥아를 분쇄하여 물과 섞은 다음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당화작업을 먼저 한다. 식혜처럼 달달해진 액체를 끓인 다음 식혀 효모를 투입하여 알코올 발효를 시킨다. 이때 상온에서 발효시키면 상면발효 맥주가 되고,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하면발효 맥주가 된다. 이렇게 1차로 만들어진 맥주는 탄산감을 위해 설탕을 조금 넣어 추가 발효를 시켜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거나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맥주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 과정이 끊이는 것에 의해 완전 분리되기 때문에 단행복(單行複) 발효라 한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전통 막걸리와 전통 청주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 과정이 한 통 속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병행복(竝行複) 발효라 한다. 맥주의 제조 방식인 단행복 발효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분리되어 있어 통제가 쉽고 기계화도 용이하다. 따라서 현재의 맥주산업은 엄청난 장치 산업화·자동화돼 있다. 원료를 투입하면 기계가 맥주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병이나 통에 들어가 포장까지 되어 나온다. 사람들은 중간중간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만 하면 된다.

또한 맥주 원료는 거의 모두 수입산이다. 한국산 맥아나 호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쟁력을 가질 것 같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맥주도 차이가 없다. 수제 맥주 역시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시중에서 팔리는 수제 맥주는 규모만 작지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된 기계로 만든다. 실제는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맥주가 아닌 것이다. 당연히 원료도 수입산이다. 맥주는 국내 대형 업체 것이든, 수제 맥주든, 수입 맥주든 국내 농업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

우리 술을 오래 만들고 마셔본 경험에 의하면 막걸리의 원료를 다양화하고 생맥주와 같은 유통 시스템을 갖추면 치킨과 어울리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걸리의 원료와 유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와 치킨을 같이 즐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그러면 쌀 소비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고 농촌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조동진, 그의 노래로 우리는 행복했다

'조동진 님께서 2017년 8월 28일 새벽 3시 43분 별세하셨습니다.' 가수 조동희가 오빠이자 음악 멘토였던 조동진의 죽음을 페이스북에 알렸다. 9월 16일 무대에 서는 조동진을 만날 생각에 지난 며칠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일순간 긴 이별의 슬픔으로 변했다.

어떤 이는 젊은 날 초라한 영혼을 위로해준 조동진의 죽음이 아주 서럽다 했고, 어떤 이는 힘겨웠던 젊은 시절 숱한 상처를 조동진의 노래로 치유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동진의 음악을 들으며 고달픈 삶에 진정한 위안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그의 노래를 부르면 음유시인이 되고 세상을 관조하는 철학자가 된다는 사람도 있다. 방광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13년 만에 대중과 만나는 콘서트를 준비하다 28일 70세를 일기로 숨진 조동진과 그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단상(斷想)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1966년 록밴드로 미 8군 클럽 무대에 오르며 데뷔한 조동진은 1979년 '행복한 사람'이 수록된 1집 앨범 '조동진'을 시작으로 1996년 5집 '조동진 5: 새벽안개/눈부신 세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20년 뒤인 2016년 6집 '나무가 되어'를 세상에 내놓았다. 여섯 장의 앨범을 수놓은 '제비꽃' '나뭇잎 사이로' '슬픔이 너의 가슴에' 등 조동진의 노래는 대중의 가슴을 적셨다. 양희은의 '작은 배', 서유석의 '다시 부르는 노래', 김세환의 '그림자 따라' 등 조동진이 만든 음악은 대중의 마음에 스몄다.

전문가들은 포크 음악의 지평을 확장한 1집 '조동진'을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선정했다. 조동진의 음악적 세례를 받은 조동익, 장필순, 한동준, 정원영, 이규호, 오소영, 유희열 등 후배 뮤지션은 대중음악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언더그라운드의 대부' '포크의 멘토' '노래하는 음유시인' '싱어송라이터의 선구자' 등 쏟아지는 헌사(獻詞)와 수식어로는 조동진과 그의 음악을 가둘 수 없다. 조동진의 음악은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가 논문 '청년문화의 대두와 좌절'에서 적시한 비판적이고 자기성찰적인 김민기, 자유주의적 히피즘의 한대수, 자유분방한 펑크적 감수성의 이장희, 다양한 음악의 층위를 보여준 송창식 등 동시대 활동했던 포크 가수의 노래와 큰 차이가 있다.

조동진의 음악에는 내면을 향한 치열한 성찰, 시대와 사회에 휩쓸리지 않는 깊은 사색, 감각과 자극을 초월한 관조적 시선, 강력한 서사와 선언적 구호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서정, 많은 의미를 내포한 고요함과 느림의 미학, 절망적 외로움을 승화시킨 따뜻한 고독이 내재한다.

시인 이원이 말한 것처럼 조동진의 음악은 순식간에 나를,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노래이며 아득함, 그리움, 슬픔, 간결, 고뇌, 시대, 희망, 선명함을 다 담으면서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노래다. 또한, 문학평론가 함돈균의 언표(言表)처럼 조동진은 말소리와 말뜻과 악기 소리를 하나로 빚어 제 뜻을 표현하고 제 목소리로 노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악으로 시를 쓰는 조동진의 노래로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위로받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좋은 노래는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음악적 신념을 평생 견지했던 조동진의 음악은 일회성 관심과 함께 단명하는 유행가의 숙명을 뛰어넘으며 시대와 세대를 관통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조동진이 지상의 무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가 만든 '다시 부르는 노래'의 '서러워 말아요/ 꽃잎이 지는 것을/ 그 향기 하늘 아래/ 끝없이 흐를 텐데 …'라는 노랫말처럼 조동진은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대중의 가슴속에 끝없이 살아 있을 것이다. 조동진이 있어서, 그리고 그의 노래가 있어 우리는 참 행복했다.

알쏭語 달쏭思

문인화(文人畫)

'문인화(文人畵)'라는 예술 장르가 있다. 비록 '화(畵)'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인화를 '서예'의 범주에 속하는 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중요한 서예공모전에 거의 다 '문인화'라는 항목이 항상 끼어 있기 때문이다.

문인화란 무엇을 그리는 그림일까? 매화(梅)·난초(蘭)·국화(菊)·대나무(竹), 즉 4군자(四君子)를 비롯하여 소나무(松), 파초(芭蕉), 모란(牧丹)등 각종 화훼와 기명절지(器皿折枝:모양이 좋은 그릇이나 꽃가지) 등을 그린다. 먹으로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채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즈음은 컬러 시대라서 그런지 채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최근 이런 그림을 문인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인화란 문인이 그린 그림을 두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록 梅·蘭·菊·竹이나 松, 芭蕉, 장미(薔薇)와 器皿折枝 등 과거에 문인들이 즐겨 그리던 소재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린 사람이 문인다운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면 문인화라고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의 그림은 본래부터 외형적인 모양을 닮게 그리는 이른바 '형사(形似:형태의 닮음)'에 치중하지 않고 피사체를 통해 그린 사람의 내면에 갖추어진 문인적인 소양을 표현하는 '신사(神似:정신의 닮음)'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소동파(蘇東坡) 같은 사람은 "외형만 닮은 신사(神似)로써 그림을 논한다면 그것은 어린애의 견해일 뿐이다(論畫以形似, 見與兒童鄰)"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서예계에는 과거의 문인학자들이 연마한 문인정신은 연마하려 하지 않고 다만 외형만 예쁘게 치장한 문인화답지 않은 문인화가 범람하고 있다. 지금 예술의전당에서는 근대 중국 문인화의 거장 '제백석(齊白石)전'이 열리고 있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전시라고 생각한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카드로 보는 세상

'살충제 달걀', '간염 소시지'…. 먹거리 공포가 우리 식탁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채식 열풍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각종 유해물질에서 벗어날 방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식 전문 레스토랑이나 채식 관련 요리책의 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달걀이나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채식 베이킹에 수강생들이 몰리는가 하면 사찰음식 강좌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먹거리 불안으로 인한 '채식 바람', 어쩐지 씁쓸한 풍경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SKhzjX

온라인 토닥토닥

가구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한 청년들 "미래가 든든"

충남 천안시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꽃무리 가구제작팀'에 참여한 4명의 청년이 가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훈훈함을 안겼다. 30일 시에 따르면 '꽃무리 가구제작팀' 청년 근로자 4명은 가구 40여 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증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책상, 서랍장, 행거 등 다양한 가구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가구들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 청년 근로자는 "가구 제작기술을 배우려면 경제적 부담이 많은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어려운 가정을 돕게 돼 보람차다"라며 "가구 만드는 일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멋진 청년들 덕분에 미래가 든든하네요",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열정만은 프로 같아요!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유병규 산업칼럼

산업연구원 원장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첫걸음은 勞使 단합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드높다.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쟁력 기반도 약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자동차업의 판매 실적은 악화일로이다. 수출은 줄고, 내수 점유율은 하락세이다. 자동차 생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2016년까지 7%가 감소했다. 동일 기간 미국은 18%, 중국은 무려 46%나 생산이 늘었다. 생산 감소로 국내 생산 세계 순위는 2015년까지 5위였으나, 2016년에는 6위로 내려갔다.

자동차업의 실적 악화는 결국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진다. 완성차업계 고용은 계속 줄고 있으며,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신규 채용도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쟁력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어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우선 가격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국내 완성차들의 평균 임금은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인 독일이나 일본의 업체들보다 15% 정도 높다. 임금은 높은데, 생산 투입 시간은 훨씬 길다.

국내업계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일본보다 10% 정도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전형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인 것이다. 국내업계의 해외 생산이 확대일로(擴大一路)인 근본 배경이다. 국내에 투자한 외자 기업들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한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 본사 생산 차량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비가격 경쟁력도 열세이다. 일단 국내 자동차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낮다. 한국 수출품은 평균 수출가격이 독일, 일본보다 40~60% 낮은 중소형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자원도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감당하는 대표 기업의 투자액은 독일이나 일본 기업의 25 ~ 40% 수준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혁신능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부품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한국은 1.8%인데 비해 독일이나 일본 기업은 9% 내외이다. 이러니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고, IT강국이나 자동차용 IT부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증가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현재 자동차업은 국내 최대 수출 부문이다. 또한 직간접 고용 인원으로 볼 때 최대 일자리 창출 분야이기도 하다. 자동차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각 생산 지역마다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공장은 수도권인 인천·광명·평택·화성뿐만 아니라, 영남권인 울산·부산·창원, 호남권인 광주·군산·전주, 충청권인 아산·서산으로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을 받은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 분야이기도 하다. 자동차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융합하여 최첨단 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 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노사 간 단합과 고통 분담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데 있다.

미국은 노사 단합으로 자동차업의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 자동차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에까지 이르렀으나,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사 협력으로 이제 중국 다음의 세계 2위 생산 국가로 복귀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자동차업을 미국 제조업의 근간으로 중시하고, 자동차업 회생을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용 확대 일환으로 크라이슬러, 포드, 도요타 등의 미국 내 신공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계속 정체되거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달걀과 계란 그리고 닭알

1980년대 강원도 산골마을에선 달걀이 최고의 선물이었다. 어머니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이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들고 학교를 찾았다.

산에서 직접 뜯어다 정성껏 말린 나물, 텃밭에서 갓 따 온 고추·상추·당근, 집에서 만들어 익힌 막걸리…. 선물이라고 말하기 쑥스러워서였을까. 어머니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머리를 조아린 채 선생님을 만났다. 양계장에서 달걀 꾸러미를 사 온 어머니들은 그나마 좀 당당했다. 짚으로 엮은 꾸러미 안에는 하얀 달걀이 촘촘히 들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엔 흰색 달걀이 많았다. 그러다 1980년대 신토불이(身土不二) 바람이 불면서 갈색 달걀이 인기를 끌었다. 토종닭이 낳은 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흰색 달걀, 갈색 달걀 모두 외래종 닭이 낳은 것이다. 가장 좋은 달걀은 뭐니 뭐니 해도 금방 낳아 따끈따끈한 것이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신선한 달걀을 '탁' 깨뜨려 넣고 몽글몽글한 노른자에 간장, 참기름까지 부어 슥슥 비벼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다.

그런데 2017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파문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품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나서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른바 '농피아(농촌진흥청 + 마피아)' 의혹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만난 몇몇 지인은 '살충제 달걀 파동' 관련 언론 보도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말한다. 신문들을 살펴보니 불만을 터트릴 만하다. 같은 신문의 기사인데 어떤 면에는 계란이, 또 다른 면엔 달걀이 나온다. 심지어 한 기사에서조차도 두 단어가 왔다 갔다 한다. 방송사도 마찬가지이다. 자막에 계란과 달걀이 섞여 나온다. 하나의 식품인데 어떤 이름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다. 달걀은 어원이 '닭의 알'인 토박이말이다. '닭의 알 → 닭긔알 → 달걀'의 과정을 거쳤다. 계란(鷄卵)은 한자어 그대로 '닭이 낳은 알'을 뜻한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준국어사전은 달걀을 계란의 순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왕이면 순우리말인 달걀을 쓰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계란을 쓰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계란보다 달걀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북한에서는 1954년 이후 달걀도 계란도 아닌 '닭알'을 문화어(우리의 표준어)로 삼았다. '닭 + 알'의 형태로, 발음이 [달갈]인 게 특이하고 재미있다.

달걀과 계란을 섞어 쓴 언론의 잘못은 무엇일까? 바로 명칭 표기의 통일성을 지키지 못한 데 있다. 최소한 한 기사에서만큼은 달걀이든 계란이든 하나의 단어를 써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궁금증 없이 기사를 술술 읽을 수 있다.

어제 저녁 들른 동네 마트 매대에는 4000원대 달걀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달걀을 집어 들지 않았다.

한때 '삶 = 달걀'이라는 넌센스가 유행한 적이 있다. 삶은 사는 일, 살아 있음 혹은 목숨과 생명을 뜻한다. 삶과 동의어인 달걀이 삶에 어려움이 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제발 먹는 거 갖고 장난 좀 치지 말자! jsjysh@

객석

이 준 훈 시인·산업은행 부장

참, 참나무

나무에도 거짓말하는 놈이 있는 모양이다
참나무라니
다른 나무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인지
게다가 편까지 갈라
졸참나무, 갈참나무, 줄참나무, 물참나무,

무언가 참으로 의심스러워
저만 참나무라고 하다니
이건 분명, 지가 거짓말하는 나무거나
나무다운 나무, 진짜 나무가 아니거나
허 참,
나무에도 거짓말하는 놈이 있다니
참이라고 하는 놈은 대개 거짓이러니

어쨌든,
수리산에는 참나무가 많다
그리고 참, 나무가 많기도 하다

기자수첩

차 민 영 자본시장부/blooming@

사소한 오류가 보고서를 망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시장·기업 분석가)는 흔히 '증권가의 꽃'이라고 불린다. 급변하는 자본시장 내 투자자들이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따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된다. 가령 SK증권의 경우 최근 코웨이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동사(코웨이)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로 해당 펀드의 만기는 2018년 1월임"이라고 적시하며, 이를 근거로 대주주 물량 출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근본부터 틀린 정보이다.

코웨이홀딩스를 통해 코웨이를 지배하고 있는 MBK파트너스 사모펀드(PEF)들의 만기는 최소 10년 후인 2025년께이다. 구체적인 개별 펀드의 만기 시점에 대해선 경영기밀이라며 함구했지만, 총 6개 PEF를 통틀어 당장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는 전무하다.

지난달 발행된 'NH월간 헤지펀드 7월호'에서도 사소한 오류를 찾아볼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자사 리서치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6월 ELS 조기상환은 3조4000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연출했다"라고 밝혔다. 최대치를 기록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내내 쪼그라들었다는 게 골자이다.

이것 또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 통계와 비교해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ELS(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조기상환액은 3월부터 4월까지 감소했으나, 5월 반등에 성공한 후 6월 다시 감소했다. 분석의 근간인 통계가 틀렸다는 얘기이다.

로데이터(원재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통찰력까지 보고서에 풀어내야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업무는 고되다. 그러나 분석의 근본인 정보 자체가 잘못됐다면 전체 보고서의 신뢰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업 분석 보고서라면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64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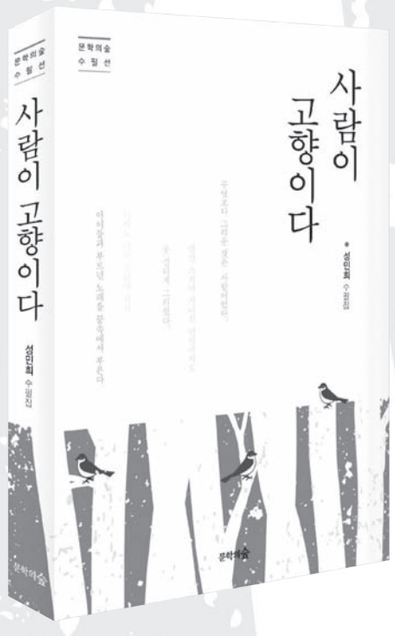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선

맛깔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렵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 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교포 생활을 '맛깔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나 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규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점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겉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 김동혁(문학평론가)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24 문 무 일 검찰총장

"시국사건 수사 잘못" 과거사 첫 사과
각계각층 인사 참여 '수사심의委' 도입
특수부 줄이고 민생 관련 형사부 강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없애라" 주문
文정부 추진 '공수처 신설'엔 온도차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 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잘못 처리한 과거 사건의 대표 사례로 인혁당 사건(1964·1974년)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등을 꼽았다.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號' 출범 한 달… 검찰 개혁·적폐 수사 집중 = 문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문 총장은 그간 하명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총장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검찰 개혁 요구를 받으면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개혁을,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국정농단 등 이른바 적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각각 요구받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고질로 지목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그는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도 있다"고 말하는 등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 자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정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별개로 자체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약속하고, 그 구성을 위한 세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한동훈 검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상사에 직언 않는 검사, 책임 묻겠다" = 최근 문 총장은 '상명하복' 식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몸을 사리느라 상사에게 제대로 진언하지 못해 일을 그르칠 경우 부하직원에게 진언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총장은 최근 전입한 중앙간부들에게 "일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보겠지만, 아랫사람이 진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진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일부 검찰 고위·중간간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 '검찰 신뢰 저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평검사들에게도 이같이 일처리가 잘못되도록 묵인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우 기자 acw@

문 총장은… △1961년 광주 출생 △광주일고 △고려대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 검사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대검 연구관)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지존파' 범행 수법 밝혀내 검사 교재에 실리기도

1988년 '대법원장 반대' 연수원생 성명 주도
"온화한 성품에 추진력·치밀함 갖췄다" 평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평할 때 '지존파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단순 추락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 이 범인이 바로 지존파 7명 중 한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지존파의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문 총장이 3년차 검사였을 때다. 이후 그의 수사 과정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들을 가르치는 교재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오른 문 총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호남 출신이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총장은 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안과 기획 등도 두루 거쳐 검찰 업무 전반에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했다. 2004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에 참여해 최도술 당시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2007년 대검 중수1과장 땐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이때 당시 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에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했다.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 등을 맡아 효성 실무진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있을 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또 이듬해엔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을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추진력과 치밀함을 함께 갖췄다고 평가한다. 꼼꼼한 성격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났다. 문 총장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안철우 기자 acw@

‘포스트 중국’ 찾아 南으로… 지난해 투자규모 350억 달러

Hello! ASEAN

⑰ 투자 늘리는 한국기업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세안 창립 50주년인 올해, 어느새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핵심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아세안은 한국의 교역시장으로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롯데, 호찌민에 2조 유통타운 추진
삼성·LG, 하이퐁에 생산거점 확보
CJ, 호찌민에 식품생산기지 조성

국내 기업들은 ‘포스트 중국’을 찾아 아세안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 규모는 작년에 1180억 달러(약 132조9270억 원)를 기록했다. 투자 규모는 350억 달러, 건설 프로젝트는 88억 달러에 달한다.

아세안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가 6억3000만 명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6위로 높은 잠재 성장률이 특징이다. 아세안은 2007년 이후 연평균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2030년까지 경제 규모에서 세계 4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 아세안에 몰리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대안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3월부터 사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들도 후폭풍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 기업은 롯데다. 롯데는 경북에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됐다. 중국에서 큰 타격을 입은 롯데는 아세안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전부터 롯데는 아세안 지역에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강경화(앞줄 오른쪽 네 번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작년 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마트 등을 둘러보고 추가 투자 사업을 검토했다. 롯데는 2020년까지 하노이에 7만3000㎡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건설할 예정이다. ‘롯데몰 하노이’는 극장, 호텔, 백화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롯데는 3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베트남 호찌민에도 에코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까지 2조 원을 들여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을 세울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둔 동남아 대표 석유화학회사인 타이탄을 2010년 인수했다. 이를 발판 삼아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롯데 외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아세안 시장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아세안의 주요 시장인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두 업체가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설립함에 따라 관련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이퐁시 트란두 공업지역에 편광판 생산 공장 설립을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허가받았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편광판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에 공급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베트남에 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만 생산해온 OLED 패널과 모듈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등 수직계열화를 베트남에서 실현할 야욕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LG화학이 베트남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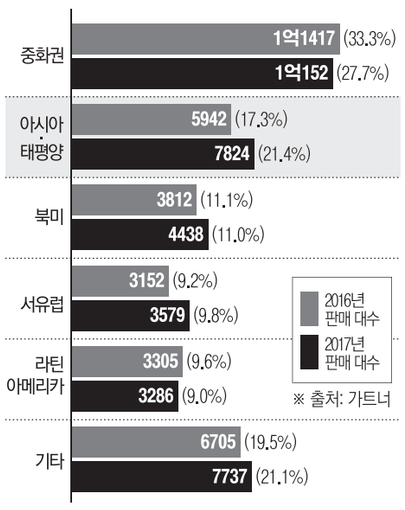
CJ제일제당은 내년 7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 700억 원을 들여 통합 식품 생산 기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생산기지를 완공해 연간 6만 톤의 물량을 해당 공장에서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한식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를 중심으로 베트남과 동남아 전역에 ‘K-Food’를 전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유망한 시장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국가 중 일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고, 가시적인 성장보다 잠재적인 성장이 지배적인 탓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주목받는 아세안의 ‘스마트폰 경제’… 부품 제조 넘어 판매 격전지로

전 세계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
(단위: 만 대, 8월 기준) ※ ( )는 시장점유율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6.7% 늘어
아·태지역 점유율 21.4%로 4.1%P ↑
“신흥시장 4G폰 보급 확대가 시장 키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의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경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 제조로 이 지역의 수출 경제가 살아나는 가운데 역내 스마트폰 수요가 글로벌 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등 아세안의 스마트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제6차 아시아 경제 단기 전망’에서 중국과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2월 JCER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3%(연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날 6.7%로 수정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4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치도 당초 4.8%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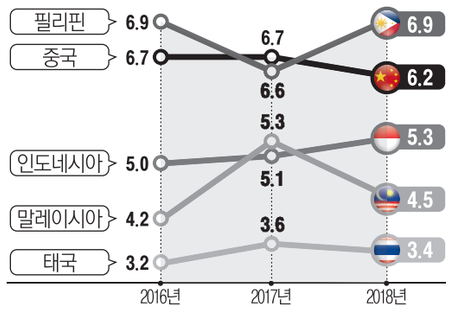
JCER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배경으로 수출 호조 전망을 꼽았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힘입어 올해 이들 국가의 수출이 늘어났고 하반기에도 무난한 수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 국가의 수출 성장세를 이끄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닛케이아시안비즈니스리뷰는 이들 아세안 4개국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스마트폰 부품 제조와 수출을 지목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한 스마트폰 수요가 이들 국가의 수출 호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세안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차기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총 3억662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가트너는 스마트폰 판매가 중화권을 비롯해 북미, 서유럽 등 전 지역에서 고르게 늘어났지만 그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매 증가폭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화권은 지난해 33.3%를 차지했으나 이 비중이 올해 2분기 27.7%로 다소 줄었다. 반면 아세안 국가가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7.3%에서 21.4%로 4.1%포인트 늘었다.

가트너 소속 안술 굽타 리서치 디렉터는 “신흥시장의 4G 스마트폰 수요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연율기준) ※ 2017년과 2018년은 전망치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국경조정세 도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는 점도 아세안 국가 수출 호조와 경기 낙관론에 힘을 실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안비즈니스리뷰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 미국 수출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달 이 계획을 포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

내신 급간 점수 적어 논술성적 중요

최재헌 입학처장

건국대학교는 올해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을 전체 모집정원(3329명)의 60.8%인 2025명으로 지난해 1835명(56.2%)보다 크게 늘렸다.

학종 모집인원도 1512명(수시모집의 45.4%)으로 2017학년도 1325명(39.9%)보다 확대됐다.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KU자기추천전형은 모집인원을 지난해 640명보다 75명 늘어난 715명을 모집한다.

KU학교추천전형은 지난해 380명보다 36명 늘어난 416명을 모집한다.

대단과대학 체제로 2018학년도 학사구조를 개편하면서 일부 학제 변경과 정원조정, 모집단위 변경 등 변화가 있다.

올해 수시 전형 전반에 전형방법을 변경했다. KU자기추천은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을 2단계에서도 반영해 면접부담을 축소했다.

KU학교추천은 교과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종의 면모를 강화했다. 교과비중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40%로 낮췄다.

논술전형은 2016학년 수능 최저 폐지에 이어 2018학년 비교과 폐지로 전형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 KU논술우수자는 논술고사 성적 60%와 교과 4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논술 외에 20%로 반영하던 비교과 성적을 없애고 40% 모두 교과 성적만으로 합산한다.

지난해보다 교과비중이 높아진 셈이지만, 교과내신 급간 점수가 적어 교과보단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동점자처리 1순위도 논술성적 순이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유웨이중앙교육 주최로 열린 2018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4년제 大學 모집인원 74%

25만8920명 선발내달 11일부터 원서접수

내달 11일부터 2018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7개 4년제 대학이 작년보다 3.5%포인트(1만2021명) 증가한 25만8920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해마다 수시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4%를 차지하게 됐다. 역대 최대 비중이다. 올해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첫해로 정시결과에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나 수시전형에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별 수시전형 조건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논술을 없애고, 학생부종합전형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이전과 모집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작년(1만4689명)보다 적은 1만296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기간 중 1인당 6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복수합격한 경우에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교과 성적 반영비율 10% 축소

김현 입학처장

경희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작년에 비해 확대했다. 올해 수시에서는 72.8%(3748명), 정시에서 27.2%(1398명) 등 총 5146명을 선발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9.6%(2551명), 논술우수자전형 15.9%(820명), 실기우수자전형 7.3%(377명)를 선발하고, 정시 수능전형으로 27.2%(1398명)를 선발한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고교연계) 모집인원을 기존 400명에서 800명으로 작년 대비 100% 확대한다.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으로는 1040명, 고른기회전형 711명을 선발한다. 고른기회전형은 고른기회전형Ⅰ(621명)과 고른기회전형Ⅱ(90명)로 나눠 선발하되, 정원 외 모집은 물론 정원 내까지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고교연계)은 고교별 최대 6명(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까지 추천 가능하며, 고교에서 추천시 대학의 인재상인 문화인재, 글로벌인재, 리더십인재, 과학인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교과 50%와 서류평가 50%로 변경해 작년 대비 교과 성적 반영비율을 10% 축소했다.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은 "경희대의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외 활동이 종합평가되는 전형이므로 교과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에 비해 교과 외 활동에서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학생부 전형 대폭 확대…논술 폐지

양찬우 인재발굴처장

고려대학교가 9월 11~13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고려대의 내년도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위주와 실기위주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Ⅰ)과 학생부종합전형(고교추천Ⅱ·일반전형·기회균등특별전형)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Ⅰ)은 교과 100%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최종 선발한다. 2018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으며, 충실하게 학업을 이수해 온 성실한 학생에게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 중 고교추천Ⅱ는 고교추천Ⅰ과 마찬가지로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전형은 추천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고 졸업자, 검정고시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기회균등특별전형은 세부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1단계를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일반전형은 제외)를 읽고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부 기록의 양이나 특정 활동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수시모집 접수기간은 9월 11~13일이며, 각종 일정은 전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 전형에서 논술위주전형을 완전 폐지했으며, 학생부위주전형의 모집비율을 73.8%(3012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의예·치의예 학종전형서 일부 선발

유정석 입학처장

단국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전형에서 3268명(65%)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우수자는 1273명, 학생부종합전형 1293명, 실기우수자 342명으로 수시 선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예년 수준인 36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DKU인재 △고른기회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 △창업인재(죽전) △취업자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죽전) △특성화고졸재직자 등 모두 1293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교과성적을 석차등급을 활용해 학년 구분 없이 정량적으로 평가해 100% 반영한다. 교과 반영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다. 전년보다 220명이 늘어난 1273명(죽전 502명, 천안 771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정시로만 선발하던 의예과, 치의예과를 학생부종합전형(DKU인재)에서 일부 선발하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졸업자전형을 폐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의학계열은 예외로 한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기소개서의 세 문항을 잘 쓰려면 지원학부(과)의 특징을 파악하고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열정을 보여주는 고교활동을 정리한 후, 스펙을 나열하기보다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학년별 성적 차등… 논술 신설

김승민 입학처장

덕성여자대학교가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모두 8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100% 전형(180명) △논술 100% 전형(299명) △예체능(실기)전형(35명) △덕성인재전형(222명) △사회기여자전형(9명)과 정원외 △특성화고교전형(18명) △농어촌학생전형(44명) △희망나눔전형(8명) 등으로 나뉜다.

내년도 수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논술 위주 전형을 신설한 점이다. 학생부성적 반영 시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로 학년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학생부 100% 전형은 지정된 교과영역의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 반영 교과는 인문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은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교과,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은 수학·영어·과학 등 3개 교과다.

논술 100% 전형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수리논술)로 나눠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덕성인재전형·사회기여자전형·농어촌학생전형·희망나눔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희망과 포부를 잘 나타내야 한다.

원서접수는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도 지원

강삼모 입학처장

동국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정원의 71.8%인 2147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실기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인기학과인 경찰행정학부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확대됐다.

특히 경찰학, 교정학, 범죄과학, 산업보안 등으로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인문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Do Dream 전형'은 전년도보다 217명이 늘어난 647명을 뽑는다. 인문계열에서는 법학과(24명)와 경영학과(35명), 자연계열에서는 전자전기공학부(40명)가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474명을 모집한다. 논술 60%, 학생부 교과 성적을 40%를 반영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성적 20%, 출결 10%, 봉사활동 10% 등 비교과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 논술고사는 수능이 끝난 이후인 11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S/W(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 체육-일반(체육교육과), 영화영상(영화영상학과) 등의 특기자 전형이 신설됐다.

원서접수는 9월 11~13일 진행된다. 서류 제출과 자기소개서 입력은 내달 14일 오후 5시 마감된다. △Do Dream 전형 △학교장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고른기회전형 △논술우수자전형 △특기자전형에서 각각 1회씩 총 5회 지원이 가능하다.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 적용 안돼

노승종 입학처장

명지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209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는 논술 및 적성고사 전형이 없으며,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의 종류는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면접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또 기타 특별한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과 실기 및 실적 위주로 선발하는 실기우수자전형 및 특기자전형으로 구분돼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모집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630명)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1단계에서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본 뒤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의 평가는 △기초학력 △인성 △학교생활충실도 △자기주도적 태도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신설된 공과대학의 융합공학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한다. 4차 산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인 'IoT 기반 임베디드 기계시스템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졸업 시 선택한 주전공(전기·전자·기계 중 1개) 공학사와 연계전공학사를 동시에 인정받게 된다.

반도체·자동차·모바일 및 임베디드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논술전형 348명, 난이도는 무난

서강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1262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일반형) 확대, 특기자전형 폐지, 고교과정 중심인 점이 특징이다. 수시모집인원 중 783명(69.2%)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외국어특기자전형과 수학·과학특기자전형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된 '알바트로스창의전형'이 신설돼, 아트&테크놀로지전공, 컴퓨니케이션학부, 컴퓨터공학전공에서 41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2018학년도 348명 모집으로 소폭 축소됐지만, 논술시험이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입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보고서', '논술시험 기출문제 분석' 등의 자료에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 등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김진화 입학처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인문·자연계열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 수학(가), 과학탐구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자연계열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학(가), 과학탐구영역을 응시해도 인문사회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

서강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든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이달 26일 대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2018학년도 서강대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THE FINAL'을 진행한다.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학교생활우수자' 551명으로 늘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논술·실기전형 등 1488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1115명(74.9%), 논술전형 303명(20.4%), 실기전형 70명(4.7%)으로 나눠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전공우수자전형, 고른기회전형이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이번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의 모집인원을 지난해 481명에서 올해 551명으로 14% 늘리고,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폐지해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 학과 구조조정으로 컴퓨터공학과 모집인원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설된 평생학습자전형은 계속 유지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을 제외한 전형(논술 등)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고사 대신 학생부(교과) 45%, 서류 55%로 일괄합산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자연계는 국어·수학(가)·영어·과탐 중 2개 합 6등급 이내, 인문계는 국어·수학·영어 탐구 중 2개 합 6등급 이내로 설정했다.

엄인용 입학관리본부장

전공우수자전형은 189명을 선발하며,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303명(20.4%)을 선발한다. 학생부 30%(교과·출결·봉사), 논술 70%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모든 전형 인문·자연계 교차지원

서울여자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0.1%인 1008명을 선발한다. 그중 학생부 위주전형으로 797명을 뽑는다.

주요전형으로는 바롬인재전형(191명), 플러스인재전형(161명), 융합인재전형(29명), 교과우수자전형(222명), 논술우수자전형(150명) 등이 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서울여대는 일반학생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우수자전형을 신설했다.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교과우수자전형, 논술우수자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영어·수학(가/나)·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이내)이다. 단, 영어영역 포함 시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이다.

바롬인재전형과 플러스인재전형은 모두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점수(60%)와 면접점수(4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홍정일 입학처장

이번에 신설된 융합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12개 학과로 다양화했다. 전형 방법은 플러스인재전형과 동일하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성적 30%를 반영해 150명을 선발한다. 제시문·자료·도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견해를 제시하는 형태의 2개 문항으로, 고사시간은 90분이다.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UNIVERSITY

융합보안공학과 등 4년간 장학금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의 70%인 1445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특기자·실기 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보다 모집인원을 늘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 644명을 포함해 총 696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정원 내 교과우수자 485명과 정원 외 농·어촌학생과 특성과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총 628명, 특기자·실기전형에서는 어학우수자 및 일반학생(실기) 등으로 정원 내 264명을 선발한다.

성신여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유형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특수목적고·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지원이 허용됐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문·자연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고교생활 충실성과 전공 관련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며, 내신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조병왕 입학처장

지난해 신설된 지식서비스공과대학 내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는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선정된 학과로서, 2018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수업료의 절반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논술시험 60%, 교과 40% 반영

숙명여자대학교가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60.2%인 317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숙명여대는 고교교육 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논술시험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3개 영역 합쳐서 6등급 이내다. 탐구영역을 선택할 때는 1개 과목만 활용하도록 했다.

학생부종합위주전형은 숙명미래리더전형과 숙명과학리더전형을 따로 뽑는 전년도와 달리 두 전형을 숙명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이 전형 선발인원은 총 480명이다. 1단계는 서류심사 100%로 모집단위별 3배수를, 2단계는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로 선발한다. 단 법과 경영 계열은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다.

글로벌인재전형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가진 학생 총 55명을 선발한다. 1단계 서류심사 70%와 공인 외국어성적 30%로 모집단위별 3배수 인원을 거르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외국어면접 60%를 반영해 뽑는다.

차용진 입학처장

예능창의인재전형은 체육교육과, 무용과, 음악대학, 미술대학 등 총 115명을 뽑는다. 그 외 고른기회전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 및 배려자,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출신자·특성화고졸재직자·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등이 있다. 1단계 서류심사 100%로 모집단위별 3배수를 선발한 뒤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통일시대 통일대학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교과성적 100%로 SW특기자 선발

숭실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64%인 1960명을 선발한다.

숭실대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 총 1029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 선발인원은 623명이다.

1단계 서류심사로 3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이 전형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입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주전공과 융합전공을 선택한다. 선발인원은 총 82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모집인원은 185명으로,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서해5도 지역 학생, 특성화고 학생 등이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해 총 349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수학(나)·탐구(2과목) 가운데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가)·과탐(2과목) 가운데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다.

오웅락 입학처장

올해 SW특기자전형도 신설했다. 컴퓨터학부·소프트웨어학부·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등 총 21명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한 번에 뽑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논술우수자전형과 같다.

숭실대는 학과(부) 성적우수 신입생에게 △4년 장학금 △학업지원비(월 40만 원) △기숙사 4년 무료 제공 △교환학생 파견 시 1000만 원(최대 2학기) 지원 등을 제공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다.

아주대학교

국방IT인재전형 공군 장교 육성

아주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87.3%인 1841명을 선발한다.

아주대는 △학생부교과(655명) △학생부종합전형(934명) △논술전형(226명) △실기전형(26명)으로 신입생 1841명을 뽑는다.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에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 외)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정원 외) 등 4가지 전형이 있다. 학생부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해 선발한다. 비교과 30%는 성실성과 인성을 위주로 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ACE)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Ⅰ)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Ⅱ) △학생부종합전형(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국방IT우수인재전형1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등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이선이 입학처장

학생부종합전형(ACE)은 1단계 100%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뒤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은 인문계열의 경우 외국어교과 23단위 이상,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교과 27단위 이상 이수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방IT우수인재전형1은 국군 정보통신기술 분야 장교를 키우기 위해 공군과 계약을 맺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5배수를 뽑고,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로 합격자를 가린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생부종합전형 高3 재학생만 가능

연세대학교는 2018년도 수시모집에서 241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809명, 일반 전형 683명, 특기자 전형 865명, 예체능 특기자 전형 58명이다.

2018년도 연세대 입학전형은 2017년과 큰 차이가 없는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 학교활동우수자는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집인원을 확대했으며, 특기자전형은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신설한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고교현장의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전형으로, 국내 정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와 비교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40%와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제시문 기반'과 '활동 기반'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응빈 입학처장

일반전형의 논술시험은 수능 이후 실시하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전면적으로 조정했다. 수시모집의 최저 학력 기준은 영어의 경우 2등급 이내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방법을 '영역' 반영에서 '과목' 반영으로 변경했다.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학생부로 2075명… 탐구형 면접

중앙대학교는 2018학년도 총 모집인원 4835명 중 68.8%에 해당하는 3327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입학전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2017학년도의 전형방법을 대부분 유지한다.

수시모집 전체 인원에서 2075명인 62.4%의 인원은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479명, 다빈치형인재·탐구형인재·고른기회 등을 포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1596명이다.

이 중 다빈치형인재는 580명, 탐구형인재는 577명이다.

학생부종합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로 선발하며, 지난해까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던 탐구형은 금년도부터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학부 신설에 따라 해당 학부 67명을 SW인재(학생부종합)로 선발한다.

백광진 입학처장

수시모집의 27.1%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 60%, 학생부 40%로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문항·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3문항·과학(물리, 화학, 생물 중 택1) 1문항이 출제된다. 논술의 모든 지문은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출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수시모집 일정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일감몰아주기’ 된서리 맞을라… 대기업 계열사 ‘분할·합병’ 잰걸음

공정위 규제 앞두고 지배구조 재편
넥센, L&C 흡수…한화, S&C 매각
한진 오너일가도 지분율 낮추기 비상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며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사의 분할 합병이 잇따르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9일 넥센그룹 지주회사인 넥센은 계열회사 넥센엘앤씨(L&C)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8.8793666이고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넥센은 “그룹 내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합병이 강화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넥센L&C는 창고화물 보관·운송업을 하는 계열회사로 2010년 1월에 설립됐다. 설립 시 자본금은 30억 원(1주당 액면금액 1만 원·30만 주)이다. 강병중 회장, 강호찬 사장, 넥센타이어가 각각 12만 주, 3만 주, 15만 주를 출자했다.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40%, 10%, 50%다.

2010년 말 매출 15억 원, 3억 원에 불과했던 넥센L&C는 지난해 말 매출액 1237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는 1001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81%에 달했다.

한화그룹도 이달 SI(시스템통합) 계열회사 한화에스앤씨(S&C)의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분할 신설회사는 한화S&C로 IT(정보기술)서비스 사업부문을 운영한다. 존속회사는 한화프런티어로 한화에너지 등 자회사 지분과 신사업 관련 조직을 운영한다. 분할기일은 10월 1일이다.

한화그룹은 분할 신설회사인 한화S&C의 지분 45%를 2500억 원 규모에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사모투자에 매각할 예정이다. 한화S&C는 한화 오너가 삼형제(김동관 50%·김동원 25%·김동선 25%)가 지분 100%를 보유중으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67%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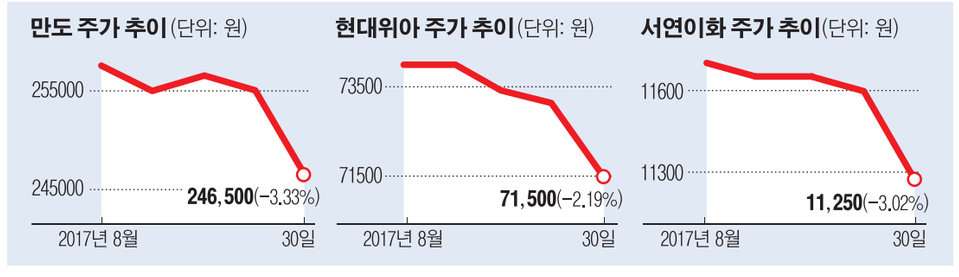
앞서 한진그룹도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IT서비스 업체 유니컨버스 개인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증여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김미정 기자 mjk@

현대차 中 악재에 부품株도 ‘울상’

中공장 4곳 8일간 가동중단 소식에
“재개했다지만 ‘본질적 리스크’ 여전”
현대車, 장중 3.2% 떨어졌다 회복
만도 3.33%·현대모비스 2.19% ‘뚝’



현대차의 중국 공장이 부품조달 문제로 8일간의 가동중단 사태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0일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해당 공장은 가동을 재개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본질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0.69% 떨어진 14만3000원에 마감했다.

전날 현대차 중국 공장 5곳 중 4곳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영향이다. 장 초반 전일 대비 3.82% 떨어진 13만8500원까지 밀려났다. 오후 들어 이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상승 흐름으로 반전하지는 못했다.

이번 악재의 영향은 부품주에서 파장이 더욱 컸다. 만도는 전날보다 3.33% 떨어진 24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인 현대위아,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2.19%와 0.20%씩 각각 하락했다. 이 밖에 한온시스템즈(-1.67%), 세종공업(-1.61%), 화신(-2.31%), 성우하이텍(-1.63%), 서연이화(-3.02%) 등 자동차 부품기업 전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흐름이 나타났다.

현대차 중국 공장의 가동중단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 현지 소비심리 위축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국 현지법인(베이징현대)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부품업체인 베이징잉루이제가 22일 납품을 중단한 것. 이 회사가 베이징현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25일 기준 약 18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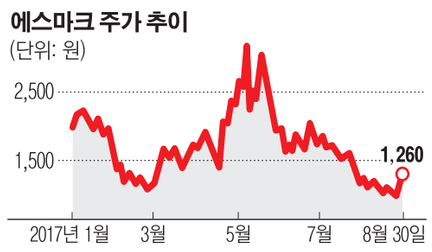
증시 관계자들은 공장 가동 중단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부품업체에 대금을 납입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기간 생산 중단으로 8월 출고판매에 약 1만 대가량의 출고판매 차질이 생기겠지만, 이를 금액 환산하면 약 60억 원 규모로 3분기 현대차의 세전이익 추정치의 0.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사드 갈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3월 시작된 정치 이슈”라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 이슈로 악화된 현지 소비심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잦은 경영권 ‘손바뀜’ 투자자는 ‘손에 땀’

에스마크, 1년새 3번… 머니게임 양상
주인 변경때마다 급등락 ‘투자주의보’



최근 상장사 가운데 잦은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책임 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수에 나서지만 정작 머니게임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섬유업체인 에스마크는 지배주주인 유피아이인터내셔널이 지비보스톤창업투자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양도에 따른 계약금은 100억 원이며, 지비보스톤창업투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측은 현재 에스마크가 진행하고 있는 코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크는 최근 1년 사이 경영권 변경이나 최대주주 변경이 3차례나 진행됐다. 5월에는 에스마크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유피아이인터내셔널이 보유지분을 장내 매각하는 바람에 단순 금융투자자였던 하나금융투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일도 발생했다.

유피아이인터내셔널 역시 에스마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에스마크의 전신인 가희의 최대주주였던 슈퍼원이 유피아이인터내셔널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이처럼 잦은 최대주주와 경영권 변경이 일어나는 사이 에스마크의 실적은 여전히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6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반기 역시 8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주가도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5월 30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던 주가는 현재 1000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에스마크 외에도 매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회사들은 부지기수다. 화장품 전문기업 리젠은 최근 5년 새 최대주주가 6번이나 바뀌면서 최근 거래정지 중이다. 2012년 이준호 씨가 경영권을 양도 받은 후 김덕일, 이준호, 김우정, 에이도스1호조합, 머큐리어드바이저 등으로 회사의 주인이 차례로 바뀌었다. 현재 상장폐지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게임업체인 로코조이와 유무선 통신 전문업체 포스링크 역시 최근 4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주인이 바뀌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한계 기업일수록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 지속성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성시종 기자 ssj@

코스콤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 1년 로봇 투자일임서비스 ‘파봇’ 내달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투자일임서비스인 ‘파봇(FABOT·사진)’이 내달 출시된다. 7월 일임형 투자자문사(파봇인베스트먼트) 인가를 받은 파봇은 9월부터 투자의사결정이 쉽지 않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직접 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봇 출시는 코스콤과 국내 14개 금융투자회사가 공동 구축한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개통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진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회·이체 기능 등의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과 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제공해 주는 무료 서비스다. 기존에는 핀테크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단계부터 금융회사와 하나하나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 개발 기간만 몇 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몇 개월로 단축됐음은 물론 비용도 없어진 셈이다.

이를 통해 투자일임서비스 파봇은 물론 공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스트콜’ 등 35개 핀테크 기업이 API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리서치 플랫폼(SNEK)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버플’, 수익률 대회를 운영하는 ‘세븐핀테크’, 금융상품 추천(KOSHO)을 선보인 ‘콰라(QARA)’ 서비스도 출시됐다. 이는 오픈플랫폼 개통 이후 1년간 증권계좌 조회, 시세, 주문, 기업 투자정보 등 총 74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오픈플랫폼에서 제공,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삼성·대신 등 14개 증권사가 계좌 데이터를 오픈플랫폼에 제공했고,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 등 7개 증권사와는 향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고객사 카카오뱅크 돌풍에… 자회사 사업확대 호재까지

'겹경사' 한컴시큐어, 3분기 실적 기대감

암호 키 '보안 솔루션' 공급
중도금·잔금 매출 반영 이어
올해부터 유지보수 수익 추가

한컴, 방화복 회사 '산청' 인수
공공기관 시장점유율 증가세

카카오뱅크 향 보안솔루션 공급 실적과 자회사 격인 한글과컴퓨터의 소방용 방화복 회사 '산청' 인수에 따른 호재가 한컴시큐어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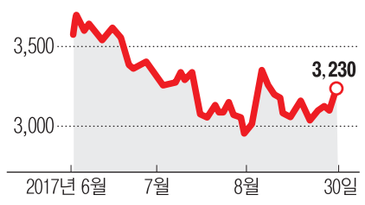
31일 한컴시큐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 공급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 실적에 반영됐다"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상 보안솔루션 매출은 2억~3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카카오뱅크 향 계약은 이보다 큰 규모란 설명이다.

한컴시큐어는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PKI(공개키기반구조) 및 데이터암호 제품이 주력이다. PKI 인증시장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세가 분명한 영역이다. 또한 차세대 인증기술인 블록체인 등과 연계해 발전한다.

이 회사가 카카오뱅크에 공급하는 솔루션은 암호 키 관리 관련 제품인 '제큐어키매니저'다. 국제 표준인 오아시스의 'KMIP'를 준수하고, 미국 NIS의 FIPS140 레벨3 인증을 받은 탈레스 하드웨어 보안모듈과도 연동된다. 앞서 한컴시큐어는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한컴시큐어 주가 추이
(단위: 원)



이와 함께 유지보수 매출까지 기대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만, 1년 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진행된다.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지난해 이뤄진 만큼 한컴시큐어는 올해부터 유지보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격인 한글과컴퓨터도 한컴시큐어의 3분기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컴시큐어는 이 회사 지분 13.54%를 보유한 실질적 지주회사다.

앞서 지난달 한글과컴퓨터는 100% 자회사인 한컴세이프티를 통해 산청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산청은 약 47년간 소방, 군경 및 산업체 호흡기류 시장의 90% 점유율을 가진 업체다. 최근 4개년간 연평균 25.8% 성장한 바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글과컴퓨터는 경기도 교육청의 18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16개 교육청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 현재 40% 내외인 공공기관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3분기 영업익 25.2%가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검은사막' 앞세운 펄어비스 上場 통해 해외로 영토확장

2014년 출시한 온라인 게임
日·북미·유럽 등 성공적 진출

내달 청약 거쳐 코스닥 데뷔
공모 희망가는 8만~10만원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펄어비스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펄어비스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상장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29~30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다음달 5~6일 청약을 거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 희망가는 8만~10만3000원이며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공모자금은 모바일·콘솔 시장 진출, 차기작 개발, 지식재산권(IP) 확보, 개발사 인수합병 자금 확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펄어비스는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검은사막'을 앞세워 고속 성장 중이다. 2014년 12월 정통 온라인 MMORPG로 국내 출시된 '검은사막'은 2015년 5월 일본, 같은 해 10월 러시아를 비롯해 지난해 3월 북미와 유럽에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올해 1월에는 별도의 퍼블리셔 없이 자회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대만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성공하면서 지난해 6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펄어비스는 남미 퍼블리셔 레드폭스 게임즈(Redfox Games)와 계약을 체결하며 올 6월 남미로 서비스 시장을 확대했다. 글로벌 12위권 게임시장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시장은 연평균 20.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3월 세계 최대 규모 게임시장인 중국에 스네일 게임즈(Snail Games)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여 4분기 내 진출을 목표로 개발과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동남아 및 터키 지역에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622억 원으로 전년 21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5억 원, 414억 원을 기록했다.

정경인〈사진〉 대표는 "경쟁력 있는 MMORPG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남아·터키 등으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라온시큐어 '생체인증 솔루션' 동남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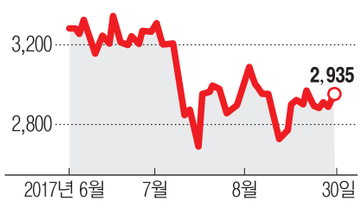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결제회사 인피니티움 업무협약
은행 40곳 이상·1억8000만명 회원에 제공

ICT통합보안 기업 라온시큐어의 FIDO 생체인증 기술이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라온시큐어는 말레이시아 인피니티움(Infinitium Group of Companies)과 동남아시아 시큐어 페이먼트 에코 시스템(Secured Payment Echo System)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피니티움은 199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결제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 본사를 비롯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와 인증 플랫폼(Authentication Platform)을 약 2억 명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방지(Fraud Detection) 서비스 등 보안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라온시큐어 주가 추이
(단위: 원)



양사는 첫 협력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인피니티움의 인증 플랫폼(Authentication Platform)에 라온시큐어의 FIDO 기반 생체인증 솔루션(터치엔 원패스)을 연동할 계획이다.

호칭위(Ho Ching Wee) 인피니티움 대표는 "라온시큐어의 생체인증 플랫폼을 통해 자사 인증결제 솔루션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인증을 쉽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아시아지역 40개 이상 은행 및 1억8000만 회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대한민국 ICT기업의 FIDO 생체인증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수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렌 '지능형 드론용 렌즈' 해외공급

3차원 인식 카메라에 탑재…장애물 회피 기능 갖춰

광학렌즈 부품소재 전문기업 코렌이 해외 드론 전문기업에 지능형 드론용 렌즈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렌즈는 해외 모 드론 전문기업의 2018년형 제품에 탑재된다. 이 드론은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는 지능형 드론으로, 자율비행 중 비행 경로의 나무 등을 인식하고 방향을 선회한다.

이 드론이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은 3D 비전 기술을 적용한 3D 카메라다. 이를 위한 핵심 부품인 렌즈를 공급하게 됐다는 것이 코렌 관계자의 설명이다.

드론에는 VGA화소의 6겹 렌즈가 총 12개 장착되며, 그중 열 종류를 코렌에서 납품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완료해 2018년 5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물량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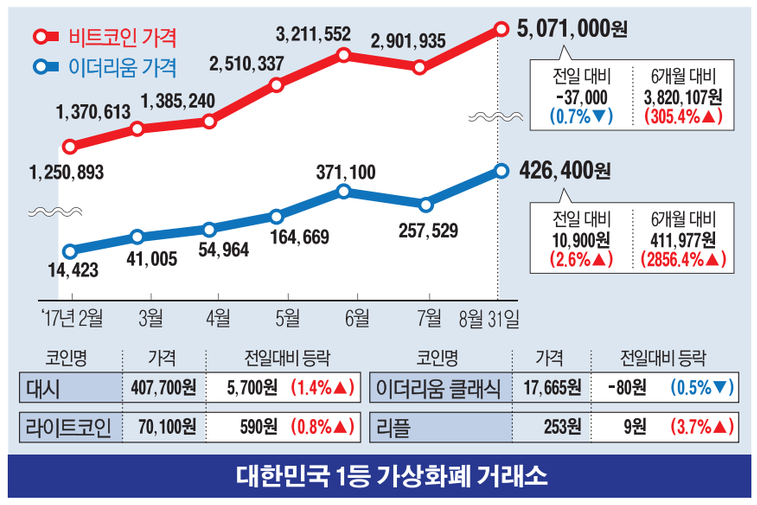
이번 지능형 드론용 렌즈의 개발 및 공급은 그간 모바일 분야 렌즈에 주력해왔던 코렌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비모바일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크다. 비모바일 렌즈는 기존 모바일 렌즈의 기술을 활용해 추가적인 투자가 들지 않으면서도 단가가 높아 코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종진 코렌 대표이사는 "드론 산업이 개화하는 환경에서 드론의 '눈'인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게 돼 더욱 기대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성장성 높은 분야를 발굴, 제품 라인과 고객사를 다각화해 매출 신장 및 수익성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8월 31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407,700원	5,700원 (1.4%▲)	이더리움 클래식	17,665원	-80원 (0.5%▼)
라이트코인	70,100원	590원 (0.8%▲)	리플	253원	9원 (3.7%▲)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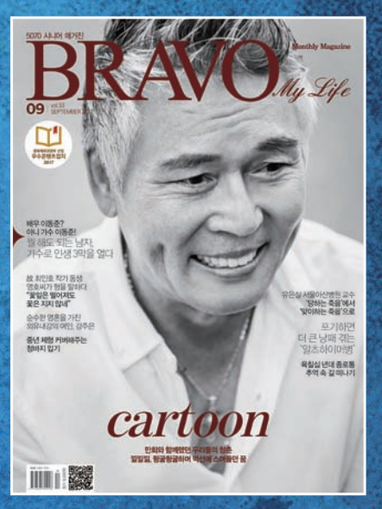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LG전자

건강이 사는 우리집

꼼꼼하게 케어하니까, 우리집엔 건강이 산다

LG TROMM styler | LG TROMM 건조기 | LG PuriCare™ 360° 공기청정기 | LG PuriCare™ 퓨리케어 정수기

| 매일 빨 수 없는 옷, 매일 씻어 입자
트롬 스타일러

트루스팀으로 99.9% 살균
냄새입자 제거로 확실한 탈취
의류건조/실내제습/바지칼주름까지

| 빨래, 널지 말고 트롬 건조하세요
트롬 건조기

살균코스로 99.9% 살균
세균, 먼지 걱정 없는 살균/위생건조
전기료 걱정 없는 인버터 히트펌프

|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움직임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360°로 흡입/토출해 초미세먼지 99% 이상 제거
클린부스터로 더 멀리, 원하는 곳부터 강력하게
각종 유해물질을 6단계 토탈케어로 확실하게

| 직수관 교체로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퓨리케어 정수기

1년마다 모든 직수관 무상 교체
2단계 매일매일 셀프 살균케어로 99.98% 코크 살균
3개월마다 방문 살균케어로 99.99% 살균

365일 우리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LG전자 건강관리 가전

* 당사 또는 외부기관 실험결과로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